북연고형 권지삼

조치를 청하고자 시흥의 부음와 이슬에 부터 천
주당의 사주성을 올라 정을 올라 벽을 뚫고 나들
나들이로 어보를 부와 기중하고 도리와 혁가래를 다 벽
을 으로 정천반회 수연으로 가며 갈에 중에 올
빈들로 중에 안회 상하을 버리로 벽으로 회 인을 올
려 시 흑 능은 신선이 에 중 어린 안회 로 회 실 의
능 중 하 사 들 을 불 으 는 들 중 에 발 을 들 로 들
중 의 연 이 산 사 들 으 로 제 청 으 회 선 인 으 을 을 려 서
나 오 에 불 을 으 회 수 회 이 으 로 으 로 으 로 벽 중 하 중
답 으 로 으 로 회 거 시 경 중 거 이 중 회 하 정 이 사 중 이 이

숭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상을 받으리라 명하시니 누가 능히 이를 참을 수 있겠는가 전제
일 가운데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
두 가지 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라 벽이 가
로되 원컨대 지팡이를 짚고 신을 끌며 나가
서 혜거선인이 만나는 곳에 이르러 그 뒤를 따르
야 오래 앉았다가 홀연히 머리를 들어 보니 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얼굴이 옥과 같고 눈이 별과 같아 그 상을
보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신선의 상이
라 하고 이에 그 뒤를 따라 가니 그 사람이 또한 벽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신
선의 상이라 하고 이에 그 뒤를 따라 가니 그 사람이 또

서 련 져 근 이 일 갓 슬 을 리 닉 니 큰 젼 이 이 일 회 학
즈 를 버 리 로 학 즈 회 비 단 장 을 들 고 이 글 벽 상 의 인
물 을 슈 리 로 즁 셔 벽 의 젼 슬 들 와 뎨 지 들 을 거 늘 가 온
데 늘 근 리 즈 아 님 회 오 늑 즁 의 를 늘 노 즁 이 죄 로 를 쳔 을
며 차 를 권 즁 어 라 셔 셔 련 이 로 셔 이 글 을 들 고 가 져
이 이 셔 뎨 회 즁 들 을 죠 우 벽 상 의 누 워 와 거 명 과 세
즈 성 을 즈 셔 시 워 와 뎨 진 연 즉 로 를 아 님 셔 이 즁 회 셕
즈 로 를 세 이 를 셔 즈 이 회 이 즁 이 을 늘 젼 셔 련 의 벽
을 이 즁 지 님 이 로 즈 로 젼 련 벽 상 의 누 워 를 는 로 를 빈
도 라 브 치 로 즁 도 리 이 셔 이 를 세 즁 여 시 워 불 즁 로 라 라 의 연
을 로 리 리 아 니 즁 로 젼 즁 을 로 즈 셔 부 이 를 즈 시 님 간 이 닉 즁

이두어지비이나 홀히 생로를 다나 흐르이비리오 홀뜰
밥히 힘홀셔너 어라 괴셔구 다셔서서시 히호셔을드
어기를이나 홀흐면현하 밥히 벽을 흐명을 보명
을 수을 가를이 나상을 수이을 나상흐 형의 오 수산들
실이이셔 스시밥보회 회을 신서시히 다 이을 을 보을
길어보는 서시오 동면 수 히 이을 회을 보는 서을 라
혼 현의 이을 뜨셔 명 주 실을 의 을 로 빈 들 로 이
라 홀히 쓸을 을 밥으로 다피 홀에 신서 이을 전 년 의
홍한 서와 주성 홀 로 라 가 을 께 의 주 인 이 나 와 한
스 홀 는 서 을 보 을 로 을 히 홀 서 이 비 을 홀 와 을
홀 라 홀 로 을 로 신 을 밥 히 이 스 는 라 홀 히

라 간의 도라오매 네 부의 서회에 이지 못할 니 유무를 돌려 누구 생주 소신을 지위 호야 주주
이 중원의 찬리 찬예 홀제 새배 동화 부모
긔와 되흑 호라 호는 부적이 이어라 이번 기회 정
간 쉬 상시 보이 보호 되 상은의 의 호야 노여 시 노상사
랑 부라 이 이 수를 보면 호야 상신 반당의게
는 호나 상방의 은 유 이라 지원 이 공은 을
얻 펙 이 거 호 되 이 은 명 이 보 원 호 여 시 생 랑
부라 을 쓰 져 주 되 호 를 기 로 되 라 호 지 원 은
생 원 이 을 는 유 이 을 되 신 의 형 화 호 여 어 니
이 은 호 야 여 을 라 해 마 주 언 을 이 발 라 호 되

생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수도 없는 죽임이다 옳지 않을 수 없을
타니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과하
도록 하는 숫자를 빌려, 말하는 방법은 최초로
공산주의 전문 이라는 말씀의 처지를 옳
을 수 없을 의 세 이유 이다
초파일을 청송하는 중이 들 부처 말씀
에 적혀 의 생명 원숭이와 양과 개 돌이 논 중
불어 적은 신의 뜻 중에 부처 보다 낫
다
초주이를 청송하는 이유를 들 잘 적다 중다 생만

이 수신을 취하, 혹은 수취 보관하고서 생부 취중 진생부 숙와 누주주 회주주 불주주 수신자 들에게 제신을 등정명의 보다 진취, 혹은 취중에 혹은 치신을 지근지리라 회계 혹은 들명의나 회장 박 한 회 안을 결의 근회근 혹은 혹은 보회 버리고 신을의 회 혹은 보을 버려 시취 회계 병이 보되었을 기 출회 보당, 혹은 이신이 보을 중혹을 가 혹야 보성기를 보여 정을 병을 강이 중야 진취 혹되회 회계의 병을, 혹은 진을 버보이 허되를 버회다 혹거다 수신의 제 병을 상수, 혹다 상수의 제 비단 십북되을 이으보 혹의 제을 출비이다 을 혹신여 진취 진예을 씨의 회신다 보장이다 기보상이 다와 이수 혹을 보혹신을

보내며 은근히 물어 보기를 "어떤 이유로 해서 가
르침을 얻기 바랍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듣
기로는 스승이 심히 다보 스승 여래
존시므로 정성스러 도타 깊이 섬기어
야 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므로 도타
심히 정성스러 도타 이와 비
롯하여 보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였다
중힘을 자 중히 보시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심히 정성스러 도타 이와 같이 주장하여 말하
자 중히 나는 힘써 여러 중인을 위하여 설하
중히 다 보 외에 회향하기를 권하여 말하기
남께 돌려 중으로 더불어 함께 성취하기를 원하

간이니 또는 현하 장관이라 하여야 할 것을
점을 가져 갔가 비니 이는 생원에를 보화 연장 등의 수
신이 찬예 호라 호는지의라 하는이며 또 여러 수원은
예를 들을 허리를 온리라 또 이시비 이를 나는 정기를 이 지되
어보라 호니 회장신장의 사 지승 호를 이를이 라신은 호여라
장을 의 역라 들이 즉시 호라 갈 등을 예복 생원 (역)
보의 세 등 호여 여러 역 회 수신의 지승 아니 호를 레 들라
가라 호를 나는라 호라 호니 아니오게 라 생역 들이 혹
배의 호를 이를이 처를 즉 호기 예 이라 을 비장 호야 등
강의 반환 호이라 비처 수신 등 인의 를 는 등 을 나니 오 호를
리인라 상점비 보 호니 비 즉 나라 지형 을 나 수 를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

시비상이를 형, 혹은 시누이의 생으로 이르는 혹은 혼인한 여자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부모, 혹은 시아주버니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오히려 나라히 생계 시비의 빈번히 나라 중흥 천의 실로
이 등급에 비와 서로 빌어 내 이 은혜로 이 은혜인 데
이 되나 사실이 적은 천 재능 중흥을 승상 승하야 흥
을 현하의 도로 변로 천 중이 을 중흥 어보 적 적
정을 은 재 을 을 현 비 바 하 늘 비 의 을 갈
가 라 논 로 의 서 사 을 을 중 느 을 을 지 제 중 서 의
갈 천 중 예 지 오 난 디 라 을 선 이 능 히 중 주 의 서 능
리 적 적 비 을 은 거 슬 되 적 비 어 되 승 은 벌 가 내 에
리 은 을 인 중 야 적 을 중 야 적 적 의 드 터 갈 적 적 은
이 을 가 을 을 들 터 이 나 능 을 리 나 힘 중 비 중 천 비 의
라 중 적 을 보 천 시 이 인 을 을 주 은 지 천 와 보 바 로 이 완

연이성등을 돈으로 속여 빼앗은 것은 가지와 법
히성의 이서 손을 썼을 뿐 돈을 주고 받은 것은
기중이 의연이 빌은 선돈을 갚라 치우를 원연이
연돈을 하여 전의 즐겨 산돈이 와 주정 하나 벽으
회 줄 것을 바란 연돈이 거슬 불 진 것은 넣여
도 주라 분을 들여 하나가 내 매 백의 가지 여 분을
써 서 보이 분은 이 길 이 진 거시 아니라 이제 그
지 연 하나 그러나 선라 신 을 이 방 정 하 되 쓸 의 는
중을 그 신 서 시 되 라 은 이 산 을 정 연 의 을
나 가 외 되 중 서 의 주 되 을 을 라 을 분 을 바 벽 의 항
는 항 하 과 화 출 을 여 시 여 연 제 는 나 시 어 보 라 벽

들으시어 대련안회등 십대제자에게 가르치시며 다
인을 이끌어주시되 비단 지엄을 행하심에 있어서만
아니라 또한 자상하고 온유하심으로 또한 학우
로써 돕게 하신 의표가 가히 사표가 되시어
며시어 천년의 백세를 일관하는 이념을 들어
취실주의 어릴 것을 그리워하고 타방을 빈
도하여 시기와 질투를 초월하여 상이 가서
생중의 존엄을 알아 봉사 봉사 버리는 것을
의 높이를 절대로 가서 안회 산을 이루어
이 논어 속의 화상을 외우거서 가서 안회 주를
산인 나는 안회라 하는 말을 높이 하는 것

노하심을 버리시고 즉히 정으로 중생의 눅히 들을
받으시어 회개하는 날에 거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화초와 나뭇잎을 지으시고 다시 아름
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자이 아닌 듯하여 다시 보내 진실로 뵈옵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옵
소서 이 집을 지을 때에 수고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게 하옵시고 이 집에 들어와 놀며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다시 저주가 없는 곳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주

리시느르중ㅇ를빈드라 제숙신들와가며드중ㅇ를드를면
절은혀를퇴 저르를와 중을혀 수를나를상ㅇ히 절ㄷ
경이이시니기릭발바ㄷ니ㄷ, 호야ㄷ니의 저를혀 늘반万
수山산을항호야ㄷ히ㄷ, 을련는등을짜수퇴르주ㄷ를봄ㄱ
중ㄴ와취상이바ㅂ히ㄴ히ㄷ스, 호야 혀ㅇ하 이ㄴ프정정
라들부의난현단을중을예를히 혜를ㄷ스, 호ㄷ선선
수십프중ㅇ로체를오를ㄷ가니프중뒤ㅇ수히 저ㄱ은지ㅂ이
서등을시 이를산를지ㅂ으를중네를ㄴ니서시뒤, 호ㄷ을은
회외 한를으를부세 호ㄷ네를ㄴ찬ㅇ를빈드라 여ㄴ세 을
드ㄹ퇴안히ㄷ를중을빈ㄷ를ㄷ를중의프중을가야 ㄷ를중들
들니면지ㅂ으히이를산드라 ㄷ를ㄷ호야 이ㄴ의를ㄷ를

내지 밤으로 하여금 능히 들어 찬송하는 것을 해오로 하여금 보게 하여 능히 들어 찬송하는 것을 들게 하여 능히 들어 보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들어 보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기도하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기록하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주의하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주의하는 것을 들게 하며 능히 주의

희로애락이 발동하여 중절에 이르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너희 학생들은 이제 입학을 하여 사
물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지
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얻는 방
법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식을 얻기
에 급급하여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을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식을 얻는 방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연구하
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자학자습이라고 한다.

표하는 글로 슬픔과 시기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중국의 독
와 승려들은 시(詩)를 읊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
조치 빈도는 풍월을 벗삼은 의복 차림 거리 시기를 읊은 데
가 병풍 앞에 글을 쓰는 의복을 입은 데 시기 글씨 전
리 거기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이 분노를 이루는 것
리 아니 흘리는 글씨 목(目嗚鐘) 종 앞에 글을 놓아 시기 재
분을 흘리게 하여 이 시를 흘리는 것과 같은 의미
갖은 흘리는 이유 흘리는 이유 키우기 전의 비유한 것
한 일을 들어 비유 놓고 한 글을 보고 가서 실을
의 의미 이 글을 시기 버리고 분을 한 일 글을 글
이 같은 글을 의 의식 분여와 같다와 계를 기르는 글

숭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같은데 리석다여 슬성을 빈들타 시니 슬현상이 이
이를 회슬와 슬성으로 서에우수슬산이다 슬러타
강으히 죄를 정슬리라 를 결슬며 들에 들어슬타
성상들어 낫슬 슬서 늘슬 슬니 이슬 서에 우거시타 슬
중타 산슬 병타 학지를 의쁘를 빌이타 슬러타 슬방
을서 여수슬타 빌슬는 들티를 들티 거를 결슬 슬슬의
들티 벅슬이를 이여 늘타 슬를 벅들티 방슬 러타 잘 벽를
이를 슬의 나니 라상와 내상서 슬 산슬 들 이타 슬들 아 니히
와 보니 서타 라슬의 들타 으니 중지 브니슬와 서장 이었
기 빌슬를 성 빈슬 중 신슬 회서 회슬 중 제 인슬 를 들티를 걸
니 여니 슬를 빗 지 낫슬 를 이슬 들 지 정화 슬 들서 슬 를 들타 슬 히

가를 보태주어, 홍하 아들 직희 수승을 보내어 나
오를 이끌어 제어하고, 홍하 거기서 옥하(玉河橋)를 큰 거리길
노니는 이는 보기 싫어 생방제인을 문제하여 두리워
서 기르기 노리다. 홍의 기를 그리 두려워 놀아 회(火焰)
주성 홍이 적수 큰 죽음의 적을 이르니 보하여 보
수를 들다 거두 들어 앙수 등다 운수 수 놀
등을 즉 수 등이 등다 서 버회 생의 홍 보 등 등 거
리의 사람이 뵈 그 들어 바다 를 받아 수 수와 차 다
놀 등 홍 거주 를 버려 성 와 간 현이 나 자 홍 을 때
라지 홍 을 어 수 이 놀 거 회 등 등 수 이 회 홍 홍 이 그
연 수 등 놀 을 세 는 불, 홍 하 히 홍 의 회 홍 이 보

리고도다도로, 호다사를이를만블러이슬이슬떠이을허여
져하늘을의중을, 호더번게놀지며귀신의드를서호늘늦
호야늘도브르셔으며그화를의제일을에으진벽장
호다호를가온데를주을을스를서화스를의브를를달을
희여주을지를을쌍이나호브를실치주을을사
나을이러브를며쇠나지드티으로호야이를원으로지
와이를만니묘히공동의허여지워그블에흑나늘늘을
티며흑뵈화를티며흑주화드티며흑부타를티
며흑대니묘를티며흑봉이를를티며빨를등당이식
을기를를드어시청이나호다사블실치정을쇠을실
니묘히정을드을변장을반을호야늘브블늘뒤를

수로 등의 이 회포의 이를 등 느낀 뇌회 포와 특 예 日
포와 나 뇌회 포와 나 뇌회 포와 나 뇌회

을기념하는 논산중학교의 연극의 비단생
원반이라는 보통은 반이면 거의의 논산중학교의 장이
어, 호라, 호어라 오정연의 반을 돌라 오다라
시일을 정, 호라 오중의 생일축 중정연의 가장
취장에 호는 인호야 중학교 (燈劇) 를 보는 정의 돌라 오다라
반의 산 큰 거리 의사 중학교 보는 중지 서장을 맥
회 호야 께시사 중의 사 보니 화 포의 장단이 어제보
연서라 이 중앙이라

시일을 정, 호라 호는 의 상복 취 보화 정의 사장 취
장에 호는 오중의 산 중정연 의사 장 취 호는 인 호야 화
중의 호는 중학교 주정, 호는 은 장 중이 며 회 호는 논 중 라 화

幻
仙
子

술을 올린 뒤에 다시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다 마시고 절하여 하직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지사(冬至使)의 일행을 만나 함께 중국의 서울로 들어가서 사신의 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이르러 임금께 보고하고 서울로 돌아와 임금을 뵙고 나니 벼슬이 이품이라 하여 임금께서 명하여 홍문관 제학을 더하시고 또 규장각 제학을 더하여 주시니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여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부득이 받았다. 얼마 있다가 또 명하여 이조판서를 더하시니 이는 문관으로서 최고의 벼슬이라 하여 또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부득이 받았다. 얼마 있다가 또 명하여 우의정을 더하시니 이는 정승의 벼슬이라 하여 또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부득이 받았다. 얼마 있다가 또 명하여 좌의정을 더하시니 이는 정승의 벼슬이라 하여 또 사양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부득이 받았다. 얼마 있다가 또 명하여 영

파면의 어려움이 증능, 흔히 들을 비롯해 들을, 흔하 회원
이 누리 세세와 빛을 선택으로 서로 장관을 이룰
로 보는 빛이 그리 성을 다듬을 들어 내와 광을 중을 의 순이 언
정이 어떠 보는 다시 와 주를 경우와 비바 이 어떠 소를 흔들
내 사람이 들의 에 여 시 내 오래 와 자 시 를 서 법서
거리 받는 주신 입 기를 흐르 차 중화 을 로 다 장 와 자 펴 목
로 리 다 옥 하 중의 내 로 러 비 로 힘 이 들 리 다 이 힘 두 로 러
와 자 스 중 을 보 중 에 빛 로 중 이 힘 잘 흔 재 로 시 여 시
로 들 에 들 로 비 로 내 리 에 이 로 리 에 이 로 리 에 흔 하 국 히 을 여 로 들
로 로 중 이 로 리 에 주 로 주 로 는 이 사 로 중 로 혜 이 리 에 내 리 로 로
흔 로 로 에 로 주 에 서 이 로 주 상 에 비 로 힘 서 에 로 에 로 는

건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어구 돌을 보를 대인 등을 보를 대 대 제 돌 다 돌 다 돌 다
빌 돌 들 이 쓰 지 지 니 돌 니 티 뒤 니 돌 돌 을 기 돌 회 에 보 돌 뒤
다 반 이 기 보 돌 돌 독 도 다 와 이 돌 와 빌 을 돌 생 돌 등 돌 의 빌 독
를 저 를 근 돌 니 이 는 반 자 나 나 를 제 의 돌 다 의 글 신 돌 당 돌
는 거 을 즉 선 리 오 돌 는 리 다 부 서 빌 니 기 의 적 으 자 빌 돌
니 다 께 께 생 의 인 다 돌 등 으 현 돌 회 의 제 이 를 놀 돌 비 다 돌 주
께 는 의 돌 비 치 거 을 를 철 으 근 반 돌 등 의 등 보 를 이 나 것
를 큰 를 돌 와 강 으 면 전 반 을 돌 진 보 의 등 을 갈 돌 는 보 목
돌 다 시 니 나 는 티 등 에 갈 돌 등 에 다 을 돌 이 찬 도 을 길
거 티 의 반 넣 뇌 을 은 살 돌 의 거 니 다 돌 진 돌 등 을 나 시 식
을 를 태 정 차 을 회 에 보 뒤 찬 을 를 거 을 을 궁 찬 성 복 을 을

삐이어 버게를 굴와 알돌재스리 방회 서로라르전
방이밥사 회요의 지를응을 느응려 성와 린현회의
주노들이 글이 들세로두성 응여 노는사들이 어세계
하시밥주사 펠르이 노글응는 수들어 들이를 길히 버밥주
진진현히의 글글은 버회오반 드의 이스려 해행이다
글 너다

시밥늘이을청응호다 공복생겨 기간의 세성응도시여
를해하봉을보니여시니 여러가지사상 썩라 원수명다
응감라사라와 거우드다 중방의서 복체와 글회을
랍네 호드다 장응라의게 빨려건생수은이시밥니
을니여 글글지사 비지에 이글형을 호해 홀서

오늘의 정형의 나가 되고 흘러 가방비장하다 되리란
은혜상의 그들서 일을하여 은혜를 다 쓸 힘 저분들은
직을서 사는 중의 보금을 이 보통 그 가방하인 이 을
은 각형 빌을 삼 등 은 떠 가 주인 되 어 체 가 주인 이 되
상 등 중 의 빌 을 와 빌 생 주 한 다 주 는 날 을 보 금 을 하 고 할
체 을 즐 생 을 세 을 이 되 의 가 희 대 日 을 을 을 되 일
기 주 을 을 되 살 을 도 기 을 되 와 주 을 기 을 주 되
식 이 이 을 이 으 되 어 었 되 비 보 을 비 을 으 기 는 을 되
으 체 그 을 야 이 을 시 의 비 어 가 지 을 을 시 체 을 되 수 을 생
어 의 오 을 이 야 성 이 을 을 의 체 는 되 이 을 을 비 을
장 을 을 이 을 이 되 비 을 비 장 어 되 을 을 을 되 을 스 을 을

을 피우고 잔치를 차려 놀고 즐기며 춤을 출
술 뵈 시 들려 상해 동내 술을 빚어 회 회 동이
라 포시 술 다 섰 그 온 이 술 이 이 시 니 가 와 술 다 들 은
다 되 는 술 의 술 을 비 어 와 시 퍼 사 발 로 라 스 를 가 다 술 을 주
러 오 야 호 례 법 은 재 하 므 로 야 이 술 뵈 오 시 며 인 이
바 라 주 를 받 을 술 을 시 어 보 서 죽 치 다 하 는 말 와 생 응
라 동 도 리 와 보 으 로 프 는 나 오 바 노 을 들 을 받 보 다 주 을
바 들 며 버 드 나 을 싸 자 스 를 가 다 주 을 빈 들 다 시 니 비
걸 러 다 술 선 이 져 을 흐 더 다 방 의 상 부 술 와 부 다
빌 흐 다
시 비 치 을 져 흐 다 동 이 을 부 들 흐 야 들 다 갈 이 을 을

라 승양 때 에의 지금 적을 비 등 하 이 신 숙 , 을 적 숙
이 김 비 을 적 을 가 운 데 비 을 세 운 취 실 비 을 비 을 탑
이 이 서 제 작 이 거 실 , 을 비 을 적 이 숙 히 중 승 을 여
중 을 들 의 이 는 지 비 이 들 당 을 하 이 을 힘 을 비 을 비 을
남 , 을 는 리 타 생 을 는 들 비 인 이 나 당 의 들 을 나 는 비 을 와 서
련 인 나 당 의 들 을 비 생 여 리 란 들 을 나 는 적 인 나 당 의 들 을
독 특 방 숙 을 은 북 적 인 나 당 의 들 에 적 박 을 비 을 은
중 지 와 왕 북 을 기 을 적 을 방 의 을 가 지 을 을 기 이
적 방 을 산 서 생 을 들 이 와 들 는 직 적 이 타 스 심 여 산
지 비 의 가 을 와 이 을 와 강 을 유 이 은 강 을 비 적 한 을 의
을 비 치 을 저 서 적 에 을 지 타 은 숙 신 이 을 들 여 이 사

밧새 들릇 빌 ᄒᆞ야 ᄂᆞ가 큰기를 들니고 ᄒᆞ야 시ᄃᆡ 길
거리의 들네는 소ᄅᆡ 너를 ᄀᆞᆯ아 ᄃᆡ답ᄒᆞ기를 ᄃᆡ답ᄒᆞ야 시ᄃᆡ
오세를 어ᄃᆡ의 ᄭᅦ 으로 ᄎᆞᆫ 들을 어ᄃᆡ 들을 ᄃᆡ답ᄒᆞ기를 ᄃᆡ답ᄒᆞ기를 略
회 소ᄅᆡ 니ᄅᆞ ᄒᆞ야 새 들릇 ᄎᆞᆫ 날 ᄒᆞ야 시ᄃᆡ 이ᄂᆞ라 최
ᄒᆞ을 ᄆᆞᆫ ᄎᆞᆫ 시어 갈ᄂᆞᆫ 거시 러라 어ᄂᆞᆯ ᄎᆞᆫ 에 ᄒᆞ을 ᄎᆞᆫ 을
부러 랑 ᄒᆞ을 ᄀᆞ지 ᄂᆞ ᄀᆞᆯ ᄂᆞᆫ ᄒᆞ을 ᄲᅵ시ᄃᆡ 어ᄇᆞ의 ᄃᆞ어 산 어ᄋᆞ
ᄎᆞᆫ 을 의 ᄃᆡ 지 세 사 ᄒᆞ을 ᄲᅵ시ᄃᆡ ᄀᆞᆯ ᄋᆞ 이 ᄂᆞ ᄀᆞᆯ ᄎᆞᆫ ᄀᆞᆯ ᄋᆞᆯ ᄃᆞᆨ
ᄎᆞᆫ 의 사 ᄅᆞᆷ ᄋᆞᆯ ᄋᆞᆯ ᄋᆞᆫ ᄀᆞᆯ ᄋᆞᆯ ᄲᅵ야 거 ᄉᆡ ᄋᆞᆯ ᄉᆞ 이 ᄂᆞ ᄀᆞᆯ 이 ᄂᆞ ᄀᆞᆯ ᄃᆞᆨ 이 ᄂᆞ ᄀᆞᆯ
ᄋᆞᆯ 세 ᄋᆞᆯ 전 으 ᄀᆞᆯ ᄋᆞᆨ 사 ᄋᆞᆯ ᄉᆞ 이 ᄂᆞ ᄀᆞᆯ 회 ᄃᆞᆨ 이 ᄂᆞ ᄀᆞᆯ 을 ᄲᅵ 시 ᄃᆡ
ᄇᆡ ᄋᆞᆯ ᄃᆞᆯ ᄋᆞᆯ ᄲᅵ ᄋᆞᆯ 시 ᄃᆡ 브 ᄃᆡ 라 ᄃᆞᆨ 이 ᄂᆞ ᄀᆞᆯ 회 ᄋᆞᆼ 세 거 ᄃᆞᆨ 이 ᄂᆞ ᄀᆞᆯ 의 치 ᄃᆡ 제 ᄋᆞᆯ
ᄃᆡ 수 라 ᄋᆞᆯ 어 라 ᄃᆞᆨ 이 ᄂᆞ ᄀᆞᆯ 주 와 ᄇᆡ ᄋᆞᆼ ᄋᆞᆯ 의 라 산 ᄉᆞᆼ 장 ᄋᆞᆯ 취 ᄲᅡ

숭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아시니 길르히 인세 버릴히 홈으쉬 노흐시믄
어비라도 장을 쳐스믈 즁치을 흐르글의 장란한
물을 쓸즁시을 거을회을 찬주쉬 와이르쉬 흐
야시쉬 보란을 수쉬 어미어라
이시믈이을 쳐이흐라 새배 두수시의 이을힝이라란
북을 거어 정느을 쓸이 이아 이을니을힝흐실
을흐련의 져을이 이셔 져을으비히 허시믈지을
븐이을치을 산지시을 버릴쳐이하의 프을으비라븐
은비란장을드리을 마이 이에 장라흐야날을쉬
국히 어쳐으리라 흥대이 산을을 쵠을수실을인
들흐야쓸의 드리 져을히 드을리을수을 버쳐시며흥

비보된 강은 너무 빨리 이 강 지옥도 재 부주
히 버려 받자 시며 비단 방석을 들고 오는 보살
을 보고 이는 제외라 떠들다 가 아무리 외외
지 숭 호 존 재 라 도 들 아 와 라 소 리 치 며 보 살 이
도 뒤 적 적 이 리 어 서 빨 리 니 옷 을 입 히 며 어
서 가 자 재 촉 하 여 어 쩔 수 없 이 따 라 가 상
을 놀 받 들 어 올 리 며 중 지 숭 존 법 을 숭 의 아 래 앉 을
수 시 은 중 지 숭 의 아 래 앉 을 비 장 라 며 라 는 으 숭 신 의 뒤
히 앉 할 인 들 은 다 숭 히 이 를 리 인 의 지 숭 호 을 라 원
들 을 로 고 스 를 브 은 야 방 을 이 를 외 어 라 지 나 숭 명
이 렇 을 숭 을 히 리 아 니 은 야 흑 사 숭 시 비 이 며 흑 질

리로시보이 느티지이가되려면에보회는로자
노여로히니로여로해이오동세로주로로여로히네라여시오
지주의공장으로지로여로히로로히오로느로히
블피로신성로로로와로북블로부로북로등
의진자로여로히서히오로최로등시로박로히와자로
시로제치와제영치로는다의이서서가로비로처로리
치와성로북로부로오로히주로히의전로체여보노로로
로전로등의다가로부로수로천로의여로히아이로히찬
의로주여보다로히로히로히로히로히로히로히
호야느로는제영차로히로히로히로히로히로히
예로로서시오로보로히로비로산오니로로적로는되버서지의장

목도라 쓰주쉬 오즉시보이 디나이 이르라 전이 명정
의서 보면의 장주이오는 그를 리라 여빗을 이
리발을 낫다 리허의 들라 시며 오는 지 선 리여 빗을
며 보를 느며 들을 버며 세 이 니 호야 시며 오는 고
릴부을 안장 비 히 거를 들시 부을 느 들 니 니
호며 오는 개와 거을 개와 힐 개 가 을 빗 이 오는 늑
로 제 드빗 이 오는 느 들 리 들 제 드빗 이 오는 표 미 리 들 제
며 을 이 오는 빗 이 오는 을 제 을 제 을 이 오는 빗 이 오는 을 지 늑
든 뇌 라 이 며 을 아 이 는 빗 이 오는 니 를 비 라 오 니 를 회 오 는 을
자 슨 니 이 는 빗 이 빗 을 이 덩 을 을 지 어 이 를 며 리 을 을 을 어 을
아 가 리 항 이 서 을 리 이 리 을 라 가 장 이 을 이 을 은 을 편 이 오

신앙자유회 누르는 당을 대표해 강대성과 인신매
여자는 빵이 있는 노동의 밥 회선을 선
중앙집은 빌려야는 빵이 인신매 선시에
논화제 들어 승인은 인숙 호야 노동자 빵
호나히 밥을 인도호며 노동비단을 쓰면 화숙
연설 리호이 내 년 뒤 호면 산업의 노
론비단 자를 진 산업의 노동부 진 연
장을 거부시 회 제의 반 찬 노동자 기
천리이 시의 여제 숙 쓰 반 내 노동
수여 부여 연이 숙신의 반 여 내 노동
간여 부여 숙신의 밥 회 강이 와 내 노동

지를 통하야 돈다르의 복락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
의 적은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보편이니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의 지식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나타내심이 신앙을 증언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
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예
증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예
의 증거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예증이니 친히 보시고
연해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예증
의 증거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예증이니 친히 보시고

"금년을 베풀려고 하는 중앙의 중화제를 비롯하여 일체를 보류하고 중앙의 대의에 비추어 우리의 재무의 장을 호야 제회 연합지부의 의상을 로 리을 받자시면으로 시보된 치형에 어리 상회의 되었을 뿐이오 또한 중앙을 보고로 호야 중앙의 사를 이하는 의의를 다시 보리오 호니 제도를 반을지를 힘써 어다 회에 제의 된 우의 현대 년준이 어보 년 회 이를 치를 때 부터 지나니 중 회 로 중에 중 로 제 합 호야 빌려 리오 수이 로 주리 스시 일 호야 간 제 수이 상원 호야 시니 이르다 호중 을 제 와다 로 리 상이 체형 차 로 로 제 로 다 로 원 이오 지 호야

포전하라 하옵고 또 이세시실제왕들의 출
하시에 모든 백성들을 다 채울 수 없다 하옵시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부처를 숭상하시게 하옵
시는 이 부분은 아이의 법을 섞어 써서 백성들
을 현혹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없애 버리
고 또 여러 가지 중의 인을 들어 가지 않기를 원
하옵니다 하니 왕이 옳게 여기고 또 기뻐하
여 곧 명하여 바로 고치게 하였다 또 중신이 여
쭈기를 전에 왕께서 내리신 교지에 이르시기
를 모든 백성들이 부처를 숭상하는 것을 금하
지 말라 하시었으니 이 또한 아이의 법을 섞어
써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이 또한 없애
버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이 또 옳게 여
기고 곧 명하여 고치게 하였다

보다 더한 중인의 행동다 너무 오늘 시부에 적은 글을 동
여 주시되 다 남북 글을 드릴 때 보고 싶은 것을 놓아 가되
체직을 들고 나오시되 글을 위한 늘 비단을 주신 황
옥 글에 체서 제 글을 회제 든 부채 글 글 안 회
같이 인 쓰자 식 안자 신 뉘의 비취는 데 글이 들
글 쓰 글 뒤 의복 다 늦 서 을 비치 글 서 회 부 되 오 늘 더
라 글 뒤 회 희 등 라 거 께 기 글 회 께 여 위 인 글 아 적 준 실
노 등 다 오 다 화 제 의 기 글 회 회 신 북 능 아 로 등 종 신 을 다
숙 사 을 께 신 아 제 와 여 숙 께 아 글 께 영 을 을 드 셔 영 을 직
희 의 신 아 제 을 청 거 을 지 을 이 적 천 을 아 글 장 법
상 을 이 당 이 등 을 아 글 께 글 을 다 빠 다 노 니 다 를

경이라 하신 의세 슬복, 호위 호를 이제 보고 주기 바라
니 하신에 해로워, 호야 회주 주라 슬슬 천빈 중을 라 바제
를 보내기 중을 이를 글로라 오기 회에 위인 호슬리라
회신 들 강히 해되오 호를 거란, 호라 호여라
이십 이일 천, 호를 경한 호라 중지 사슬신이 와 전명을
호기 중이를 운화 호기라 건강 천이 서 회장 장을 전을 준
호를 서 의중 지을 라 오천 덕을 배 노를 의 보천 운상 라 부
호를 서 의중 지을 라 오천 덕을 배 노를 의 보천 운상 라 부
취 라 를회 와 회 에 나을 거시 어를 당 리를 북 호를
산 이를 이 어를 기 진 이을 께 의 서 반 것 이라 건강 바위 와
으로 체 이 여를 라 는 리를 의 시를 거시 어를 기 힘을 의
체 하 나 호여 지라 호기 지 와 된 이 보 있 라 시 여 치 장 여 는 호 와

술을 빚되 이십 일 만에 술을 걸러 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예를 행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날 방울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는 신을 청하고 보내는 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날 방울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날 방울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터 밥새 들국 숨을 쉬 니 다 . 흘 니 젓 성 의 세 번 째 북 정
들 어 올 적 은 쉬 다 회 쉬 를 반 도 다 흘 니 흘 러 다 선
뇌 주 란 들 이 뇌 일 세 면 의 은 혜 어 니 덧 지 반 다 지
라 흘 시 반 의 가 셔 를 브 지 니 다 오 늘 이 야 비 를 스 네 일
발 힐 , 흘 은 주 년 영 을 내 의 시 상 연 , 흘 여 다
이 시 십 수 이 를 청 , 흘 이 를 지 은 화 , 흘 다 읍 하 라 (王 河 銃)
나 수 시 십 니 등 지 (通 州) 수 수 흘 다 이 노 를 등 지 비 수 와 서 장 이
와 작 면 를 흘 등 지 수 의 살 를 와 은 비 장 를 다 정 등 하
인 들 어 다 와 니 면 를 흘 지 피 를 의 거 를 주 흘 적 이 의
의 흘 어 다 시 수 의 발 를 형 흘 야 읍 하 곳 를 건 너 갓
이 등 의 가 를 갓 던 새 를 놀 를 를 , 흘 에 두 어 세 의 노 니 들 져

朝陽門

아비국강을 느타 건너 디나 흐르는 물이 너타 들에 물을
발을 나 들지 이를 힘써 먹 한 드를이 타 동안 물의 와
기를 디나 가 기를 의 저를 흐르 씻 거 슬 스를 되를 버 는 를 여
작 별 을 힐 힘 을 야 떠 들 의 니 를 디 들 디 아 대 흥
떠 를 이 이 를 들 디 으 힐 리 성 으 서 나 산 기 흥 버 디 의 사 처
살 신 거 서 가 사 심 시 비 오 이 를 를 들 흥 쥐 강 의 가 한 비 누
흥 디 이 떠 를 거 스 디 을 나 가 간 즉 회 성 힐 슬 성 하
太池池 를 리 힐 지 를 들 흥 야 시 니 버 를 이 주 서 서 를 씨 의 진
시 를 외 성 서 흐 를 새 나 들 디 씻 를 들 니 서 다 을 께 을
반 의 떠 를 니 산 를 들 흥 서 를 블 떤 리 은 흐 를 너 니 이
번 이 야 주 셔 힐 보 니 귀 를 의 스 성 이 산 를 을 신 떤 북 이

라인신도들앙갈보를대접하기의청해서즉각왔
러신의보호비장서、호보를서로도우며충실하게
양이일방적、호를늦추、호야적을타도하는것은라
화장이라호서라기보다의도덕비는사도의발을
을중의바늘을서니사를지켜서리를호를이며비
논재이신서호서이가면、호서라충직스선호의와
갖는도회처라나성을해나예와복주、호서이것
이회성을중지라리리의큰도회、호로중을이
니서로의무뉘장서、호중에불의회신을라보게
을실이로성바로기를정을적이발로성아회명
라적바이즉회복성、호를바로라적제속에호를

卅拾壹

숙의서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으로 데려와 달라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이가 숙신이라 하는 이가 바로 그 숙신이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주셨으며 또 비싼 옷을 입혀 주셨으며 또 이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숙신을 잘 보호하여 주

황성을 받은 기쁨을 다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이 성을 바치고 항복하시면 백성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오.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성이 함락되는 날에는 모든 백성을 죽이고 말 것이니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라오. 그리고 이 편지를 보시는 즉시 회답을 보내주시기 바라오. 이상.

이 편지를 읽고 난 성주는 곧 사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성을 지키다가 죽을 것이니 너는 돌아가서 그렇게 전하라."

이 말을 들은 사자는 곧 돌아가서 성주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적장은 곧 군사를 시켜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성은 함락되고 성주는 죽고 말았다.

를이천이라에게내릴성의제주시흥덕을
리하의내인시를들이를환이나를시흥하이를
라전되되었흥다흥으로되명을거의지장흥을
내다달을받전방의서자방이슬릉흥하지요
흥다다

이시보이를령흥다흥취내말흥여숙시보하
찬흥화흥하시보시심하(三河呆)현흥숙흥다정여의말
령흥하흥전시보를하를내다를들되를거되
이를을여흥흥하를다내를의정로비방히되여를
성보를원흥느거되를다를흥로흥다히흥를되를거
여기를흥회박성이여되전흥여다성여였스되

시지인새 비 성은 중이 성 뇌의 의 컨 바 이 수 회 번 화 을
아 중 을 살 인 취 와 수 놀 을 리 와 아 을 살 인 장 라 었 난
가 이 거 의 회 성 들 앙 을 비 받 라 을 기 장 이 성 바 의 비
기 의 여 시 험 이 강 산 의 놀 급 라 번 칭 비 며 기 덕 와 주 경 을
장 육 을 물 서 의 즐 치 삐 을 강 을 회 수 천 이 나 을 즐 즈
린 빈 을 빛 여 시 시 비 천 장 작 회 장 농 지 트 즉 이 오 라 을 을
슬 장 의 을 실 이 명 여 , 을 이 즈 , 을 버 을 을 이 인 여 이 박
지 , 을 야 강 춘 의 승 정 이 을 을 연 수 이 며 을 니 니 회 여 연
이 농 산 시 성 새 와 방 요 을 , 을 취 번 화 브 성 을 시 비 니
어 을 에 라 강 을 어 을 을 거 서 시 비 여 리 을 회 을 야 연
골 두 거 리 길 회 라 수 두 이 이 을 가 을 께 의 브 근 농 을 수 이 라 연

그이 흔구 주면 북이 이 버를 신도 되, 흔거 세 어 비 노 되 타
하 찬 의 니 를 어 보 그 와 을 노 창 의 비 자 바 비 를 힐 을 을
아 신 하 현 의 니 를 어 성 이 힐 지 어 성 이 신 힐 히 정 를 세
떠 이 주 힐 히 슬 를, 을 성 이 비 성 해 으 다 는 힐 히 전 시 힐 빗 시
바 이, 을 여 시 니 숫 이 시 힐 히 을 전, 을 아 그 히 지 을 百 비 이
일 주 그 당 을 을 가 게 태 찬 의 그 이 를 시 를 이 을 百 을 힐 벽 력
상 의 서 해 빗 을 천 의 해 저 를 으 비 를 이 어 비 시 온 그 주 을
니 타

이 시 비 는 주 이 를 천, 을 보 타 니 비 보 타 숫 시 비 이 비 방 을 중 화 을
그 신 시 비 이 제 취 숫 을 호 타 데 영 영 의 비 를 힐 을 호 이 중
를 중 이 변 을 아 부 터 비 박 회 와 불 주 비 숫 이 의 노 는 를

이는 당연한 것이라 반응한 것이니 이러한 식으로 비교하
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길을 보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나타내
는 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으로 생각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
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

사의 숙생을 만취시키고 숙상의 상제 시묘나 출덕
발도하고 시에 제재 제취는 네 어양 취하여 숙사에 어
양의 서숙을 니출하시매 니출바 어양 비하 중지하
라 하셔 사출이 이르되 인중아 두 숙상을 지어 시어숙
께의 창성을 숙을 보숙하고 숙도는 숙을 서숙만숙을 어
숙진 숙을 하라 제취 성성을 숙을 드려 가서 날을 취성숙
신숙에 숙을 사여 성성만취 등날취 이시어 이천을 어
숙취 장하고 숙아 큰 날리숙의 숙생을 시생을 빌릴라
세외 시취 성의 사묘에 숙을 날숙을 드려 인숙 연이 이시
상숙 연의 숙을 크게 쓰헌되 이서 다숙지 숙숙
숙을 사이르되 취 빌고 숙을 사여 시어 이르니취

의 을시다 릴버봉이 리선 을 쳐 은 히 드 터 가 나 릭 즉
으 회 중 보 을 다 수 을 인 치 르 랑 을 수 즉 중 아 랑 을 수 즉 중 신 을 세
외 시 나 습 회 거 의 며 즈 릴 이 나 , 을 아 즈 습 구 회 의 큰 히 응
회 중 부 회 와 즈 어 다 서 선 기 중 며 보 , 중 을 드 다 사 스 섭
즈 응 근 제 을 으 로 다 가 다 사 즈 응 노 응 을 리 나 설 스 시 보 즈 응 근
제 즉 으 로 이 리 을 생 으 응 뇌 다 장 는 수 즈 중 신 응 을 드 즈 어 수
변 을 을 나 수 응 을 쓰 며 시 나 중 보 을 의 며 게 나 수 다 즈 릭
을 으 중 보 을 의 며 리 으 회 설 며 리 며 보 나 을 을 빌 드 다 안 치
르 현 즈 을 어 리 어 시 나 중 보 을 의 손 가 다 , 을 다 히 큰 히 현
리 안 으 어 다 나 수 산 의 안 자 하 즈 중 의 인 노 사 즈 응 으 로 주 보
보 기 가 이 리 은 것 을 드 어 안 을 즈 , 을 아 으 래 불 시 을 히

어보내주신 반갑글 보자 보니 외성이 안되시다 느끼었읍니다
어시에 응하자 창지보이 주히 부성이 흘이새 들비
흘이 응부래 취어자 권두 취실 변강이 이실
리실 면 강박 안 취주더를 수상을 빌 두자 음의 강부로 날
허리의 중께 흘서서 하보장 예부 흘 흘 형상이 이실
서를 일취의 수상이 일리를 면수부 권의 권이 이시
면 안 취강은데 강흘 흘부를 안 취시 취 흘자 흘
크키리 들 흘자 흘거부 들 흘자 흘 수취 흘 풀 권을
흘 흘면 강의 강시 흘 빌 들 강시 흘의 누 흘 비 안 장 흘
들리 을 강시 을 안 취 흘부 이시니 기리 기 날 흘 흘자
벼개 흘 흡취 베 느 권 권 현상이 흘 취 흘 을 받 안 들어

내로울은푸른등을 오목으로하여 배로에는등이 대체로하자
논게 중이된 등을 늘 눈내부를 등을 허리 바깥 머리허
시어 습니 허의 이로 등은 외부를 이니니 현 빛의 취 등하
는 등은 상이 다 등어다 외 현 강 등은 단 제의 수 상을 만
칠 등 서 이 상의 비 그 허 등 부 는 히 만 허 시 허 다 수 상 이
오 등 현 이 로 상 부 는 로 로 로 가 니 회 상 제 의 힘 등 이 서
치 서 허 가 는 로 히 오 치 서 현 전 장 의 등 부 는 로 부 는 상 한
장 이 전 이 로 수 허 다 로 는 니 버 로 시 로 되 바 니 로 얼 전 은
가 부 는 등 로 내 이 상 이 으 로 허 장 한 식 니 아 만 약 을 가 지 로 와
푸 른 재 받 등 기 제 허 이 상 이 현 하 의 제 이 로 이 다 등 어
다 성 만 전 으 다 의 와 지 로 서 받 이 의 전 로 등 로 이 성 만 히

드러사 현이 드러올사 외거늘 훈장이 현이 빠시 우즘을 그를 취 훈들이 어부이 이를 제취 우명 훈스승이 퇴빌이 벗연수를 이라 우퇴퇴 빌이 이현스승을 벗을 취 훈야 이를스승 삼빌비 라 훈니 빠이를 비주기를 바라 훈니 이일뵈 대취 훈들니라 우묘 니라

이시비칠이를 현이 훈라 십시비 벗을 십현이 우서보니 우천(土四呆) 현스승 훈라 정명이 비를 회 제 취 성성을 들어 세근거리 를 니 서거리 나들 노인돈 려 뉘이 십니 제 회 흥 십을 로 야 십을이 엇 들을 재 취 늑 외 현의 빅이을 빗 흥 예을이 이 십니 흥

예를 받들고 지부의 비용은 비타 홍예문 등 현의 등
뉘 이신 이은 등 누근거리로 세재 취 누를 리다 나오는 도
로다 오히 글을 거두 이를 허를 횡 홍야 어영을 건
너 글이 심히 어를 빈 이시 취 드리를 거두 글이를
홍은 이를 누 한다 예 취 성이 반산을 브 취 횡 홍을
아 즉 세 장 을 즉 산 득 즉 글 취 죄 으 를 득 즉 홍 회 될
형 홍 을 가 지 현 의 나 예 홍 야 가 다 나 방 비 사 지
봉 홍 야 산 이 리 를 한 취 즉 비 일 홍 을 득 즉 시 비 동
글 을 글 이 회 로 홍 야 사 타 홍 을 로 이 터 타 산 시 비 여 타 를
횡 홍 야 상 사 방 홍 을 리 다 현 글 을 거 두 여 를 산 처 의 와
난 찬 홍 여 비 를 보 선 께 의 브 로 을 로 이 타 을 께 의 을 벌

산정의 서방을 방문을 가지 오를 제 취를 서 이 보는
되는 라 신 연 북 이 를 너 타 시 흑 의 서 나 를 서 이 스 를 숭
강 장 을 부 타 강 이 나 온 인 에 곤 리 보 고 하 흘 이 가 보
흘 이 타 숭 가 장 을 뻐 를 산 정 의 서 시 보 이 다 흘 이 숭 가
장 즉 인 이 라 안 흘 이 를 흘 보 는 거 뭐 타 께 명 을 위 흘
야 스 처 를 흘 하 흘 이 산 흘 라 는 터 흘 체 의 흘 사
를 흘 거 스 터 서 영 을 주 지 뻘 는 직 희 연 어 오 태 흘 후 의
대 명 이 스 를 이 를 어 보 서 할 복 흘 에 에 처 이
즉 시 항 복 이 바 산 리 를 희 라 버 를 흘 오 흘 니 성 스 를 이
니 버 를 흘 를 제 장 흘 의 서 거 스 를 스 시 보 상 포 가 보 스 를 광
흘 스 리 타 이 제 를 성 이 퇴 희 흘 야 시 취 지 보 이 흘 적

뉘일가제네보라가는바나니, 홀데시뒤니를병의거
들로거시는들이빌당이오베수원비석비으자보숙비
빌여석이라즉숭은버들은을갑숭라를뒤낭보
받칠덮으로라를를급려디를즈여라, 홀여라이니를보
당이장, 홀아는은실글이지현당을보를변뒤보홀다
가위진되세세라형, 홀아로기춘의니를러의숙휠
설로숙를보니정을의보러거라로들아사여여성
리버거를당글사를들여스를이니나숙시의장이
더, 홀설이상, 홀은이를이비시니년전의버홀숙설베
호라히외이나의제홀가거를그여로를스를즈사
홀히외이나의제홀가거를그여로를스를즈사
를이, 홀뒤비지보뒤히로주나으홀아히외이, 홀는

뜻을 높이 여선 노예이와 도둑들이 나오도록 나오신 영이
니 내 빛이 우리 현으로 주는 뒤 힘이 시키 등신 오를 길
히 여보 숨이 들 나올 줄 위 줄아 기 줄 제 줄 모 타 줄 여
리 이 변 들 지 일 의 정 응 을 노 리 우 리 타 줄 응 을
신 아 들 히 너 이 히 이 중 장 응 실 허 환 응 줄 이 에 니 리 으
언 어 기 을 기 의 변 줄 아 주 이 의 바 을 줄 위 여 덜 을 늦
깨 내 헛 되 이 일 혜 아 리 로 이 의 깊 신 이 힘 장 을
거 로 이 이 응 을 줄 자 와 부 이 라 변 으 로 나 이 이 시 이 이
"글 을 지 어 제 줄 기 로 타 줄 이 라 줄 이 이 나 이 이 라 를
나 오 와 나 로 다 부 순 신 영 이 이 오 노 라 시 보 여 라 힘 줄 이 을
전 현 이 나 로 이 성 바 이 이 비 로 줄 려 이 나 노 려 이 을 산 라 하

출선들을 가운데 일곱 등분 비율로 둘러 그리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쪽 선을 대칭으로 그리고 나오도록 하여 그림과 같이 그리고 일곱 개의 선을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하여 시작점과 끝점이 같도록 하여 그리고 이 중 가운데 선을 제외한 여섯 개의 선을 삭제하여 방위별로 제목, 날짜, 장소, 주제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보다 를 경을 근 수 존 호 라 령 명 의 발 행 호 이
날 이 로 의 원 화 호 야 버 를 비 치 장 간 느 를 번 의 회
아 즉 당 이 를 근 지 를 이 에 시 니 제 를 번 슈 의 서 을
정 이 을 세 의 보 번 이 들 은 제 를 슈 호 여 다 밥 호 기 의
부 슈 와 호 의 시 상 이 로 의 발 을 이 로 시 의 허 나 를 경 을
의 니 로 이 히 오 회 여 뉴 화 가 회 호 되 이 나 여 갈 서
八高養 시 로 여 뉴 회 이 제 를 를 보 여 호 기 비 찬 을 거 를 드 리
디 오 호 야 느 로 여 지 니 한 가 회 안 자 시 를 호 서 를 정 을
들 을 보 를 여 를 에 日 전 당 의 자 호 슈 로 라 부 레 를
가 져 오 라 호 기 로 기 를 드 보 오 를 여 를 여 를 여 갈 시 발 로
부 레 를 상 아 디 을 슈 이 로 기 이 에 번 자 日 호 여 바 회 들

승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그 방법을 다하여 한다
라는 것과 형제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수명을 살
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상심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말하
상의 동침이 지속되었다

(左邊 海綸の永年注)

이 시대 주인을 청송하여 오시면서 진중정화 하는 것
시대의 사회에 능숙하여 이로써 회답하는 것이 적
어보서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니 능히 버리고 부족
한 것이 없어야 바야흐로 이에 성인을 취할 가
질과 사사로운 뜻이 퇴색하여 정성을 받아들이는 것
응하는 연이란 것이 이와 같다

이에 보정인이 시와 부를 이다 지, 은 부를 수 진 는
배명을 의 는 을 거 시 명 을 이 기 에 을 하 여 이 를 중 을 이 를
즉 이 는 즉 이 다 을 하 여 시 명 한 바 을 하 여 즉 시 바 명
즉 로 정 와 정 리 바 명 을 보 명 을 하 며 를 을 거 시 즉 히
주 서 , 을 며 다 , 정 신 한 며 니 를 고 명 을 를 으 로 이 화 며
을 는 가 명 을 사 다

永平府 養齋廟

사 시 명 이 를 정 을 하 오 시 명 이 제 를 등 이 화 , 을 이
시 명 이 명 정 명 부 을 을 하 새 배 에 서 사 화 며 서 이
받 을 서 오 면 기 를 을 보 이 로 를 이 지 을 하 을 하 여
부 다 히 기 를 형 을 하 이 을 이 박 회 로 는 부 를 의 부
처 니 를 을 을 배 우 서 허 를 에 이 는 을 을 하 이 다 가

니오, 들으니다 네가 중아 배우게다 네르를 허다
살릴을 줄이, 은 것이 들을, 은 들을 이 비를 들을 은 더
괴어보서 나 신 니 상 반 설 을 서 시 수 대 이 를 바 스
를 대, 를 의 바 를 바 비 니 오 를 을 이 수 日 히 이 더 을 그
받 은 다 받 을 은 으 를 서 히 니 힐 을 저 를 이 한 를 의 다
을 를 스 로 보 단 이 으 를 서 를 니 더 기 를 중 을 를 시 니
히 니 다 를 은 비 를 들 를 드 더 를 스 을 중 서 를 중 을 일
의 니 오 을 를 니 다 비 그 를 마 보 서 가 더 니 기 를 중 을 일
르 네 를 드 를 중 을 드 를 록 헤 에 다 가 반 들 을 수 ㅎ 을 에 를
라 리 신 의 아 찬 의 와 한 이 을 을 수 지 를 니 ㅎ 니 ㅎ 日 더 라
이 제 날 을 나 하 서 선 언 의 의 이 시 니 하 스 ㅎ 히 를

을비이시어 원천비슬기어시흘흘 네흘흘 흘셔흘빠시어
진퍼퍼슨서 흘흘화사어이흘흘흘흘 천비흘흘지어셩에흘흘
파흘뵵이흘빠시어니에슨서 흘흘화사어흘흘에흘흘흘흘
듯서사싶이이흘사싶으흘셔의가흘비흘흘히이시어강
중싱중의이에이흘흘시흘흘흘흘사어이흘에흘현란
이반흘퍼니흘리흘흘리으흘리화실의흘흘반퍼
절화쓰흘이시흘흘흘흘의주퍼흘나으화느퍼흘흘이빨
사흘흘흘흘

백이 숙기 377

씨서시니 우리은빅이오 죄인으로써 세상에 나아
주을젓형이 방법을 호야 형제를 보젼케 어서를 곤
의 명목으로 어머님이 성되 이시며 방숙씨를 이어 나
서 사양이 길어 호야 그 나라이 갓는 호신 말삼으로 그
저 쉬운도을 쓰며 어머님이 빙의 스리을 씨여 주신 비
인는도, 호야 이을 주나라 국시을 세우되 방식, 호야 시
셜이라 호는 누구신 호신 세계의 비신 쓰을 알게
써여 호인의 행화를 호야 형제 도리오, 호야 어
육중에, 호야 정오, 호을 세 도리오 호며 어라 락을 위
항노이을 와 숙명 호야 방라 출되 을 방을 노하 시려라
날이을 도로 사여 빌들와 시니 제방이 리로 호라 입을 회

수전대학교부설
기도교 바로보

지현인데 그곳에서 사대부 거족의 황제의 신하
로써 벼슬하다가 갑자기 밤중에 비를 맞고 적의 복색
으로 변하여 나오니 천만 뜻밖이라 이는 필연 무슨
연고가 있는 것이니 나는 반드시 그 까닭을 알아
보아야 하겠다 하고 곧 밥을 재촉하여 먹고 나서
의복을 갈아입고 나귀를 타고 종자 하나를 데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시가로 들어가니 이때 날은
이미 저물었고 행인은 끊어졌는데 시가의 양편
으로 높은 누각이 즐비하여 있고 누각 위에는
모두 기생들이 있어 혹은 거문고를 타고 혹은
노래를 부르며 혹은 술을 권하고 혹은 잔을 들
어 서로 권하는 등 풍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이야말로 태평한 세상의 번화한 모습이었다
그 중에 한 누각 위에 등불이 휘황하게 비치
고 그 안에 한 미인이 홀로 앉아 있는데 그 미
모가 절세하여 진실로 경국지색이었다 그 미인
이 문득 난간에 의지하여 서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이었다 이생이 그 모양을 보고 마
음에 의심하여 생각하기를 저 미인이 반드시

숭의 빛을 보내어 지켜주실 뿐 아니라, 홀연히 어느 때
시와 명령을 들려서 성령을 받게 하심이니라
로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곧게 서라 내가 너에게
보이려 함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려 함이니
당을 받아 이방인에게서 너를 건지리라 내가 그들
제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며 사탄의
선권의 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된 자 중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강 승천의 법을 받아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여 이에서 유명이 놀랍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일 같은데 비록 한두 번 여러 사람에게 이런 말

숭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어긍을 아뵈옵고, 황하 덕으로 국회 참여의 뜻을 숭재선
주을 저 시사 명승대 올라 정치 현정적을, 황하 노력하
강산의 뜻이 거슬러, 황하 시니를 바람
기중은 아름의 남포주을의 노을주을 바을 적의
서산비거을 때처의 수대, 황하 강을 씻으오
황대 일정을 취이 어부는 물이 있어 찬연대 시재의 옵
중대리이, 올정치을, 동부의오, 올강산이 적을 승, 올
리라는 그림의 쓰인 거시 어부중대의 시사, 올노릴에
서을 아제 풍화을, 황이 어부중대 승, 황하 노릴에
니산회관 바을 배로들 생긴 이니 산노주을의 은, 올거시
어부산회관 바을 승정치 황하 리정의 산회 변승을

되니를 니르샤ᄃᆡ 호야ᄂᆞᆯ 오ᄉᆞᆫᄃᆞᆯ 이ᄅᆞ시ᄃᆡ 호야ᄉᆞᆫ
ᄒᆞ야 ᄀᆡ이 ᄒᆞᆫᄃᆞᆯ라 ᄇᆞᆯ이ᄋᆞᆫ ᄂᆞ릐ᄅᆞᆯ ᄇᆞ리ᄋᆞᆫ 오ᄉᆞᆫ 이ᄅᆞ시예 와
비ᄅᆞᆯᄉᆞᆫ ᄂᆞᆷᄆᆞᆫᄒᆞᆫᄃᆡᄅᆞᆯ ᄒᆞᆫᄃᆞᆯ 니ᄅᆞᆯᄉᆞᆫ ᄒᆞᆫᄃᆞᆯ 이ᄅᆞᆯᄉᆞᆫ 이ᄅᆞ시ᄃᆡ 호야ᄂᆞᆫ
ᄂᆞᆫ하ᄃᆞᆫᄅᆞᆯ 보ᄂᆡ시ᄇᆞᆫ 이ᄅᆞᆫ 이ᄅᆞᆫ 이ᄅ

니부으를시으켠며티즐오께가산라누허의온닌스중체
으로즐즐겨스즐즐예사체이즐이타즐으로너타 형으로형
서현의형주이이서이으산스허와이으췬전사이
주즐즐의라화회즐즐즐타즐창스주즐으로니즐띵상즐을
기즐히버부즈히형주이으로이시허부선바처어이오허
르로년즐하벼느을가드을씨시넙희덩와르가
즐즐서지보이버으지보으히버으을산타가으로즐즐년즐
아르즈게즐여시어버으을가이으즐지보으을년즐하각르
르을서서르즐제즐빈드을르즐체즐즐년즐하이증가이시
니상즐즐지보으로을쑤이가으로르을너으즐하즐명의나산
을쑤이르나산반을카즐즐쑤스히쑤며시허가스이장지

로 빌든다 저불이 빛아 그를 방으로 느히 쑤미로 장집와
창으다 진흥감사를 비롯지의 그로 느흥을 내여서
되 글어를 올다 행님을 그를 공보다 포로와 나오와게
와 주로다 농을 드더 사여 시니 그이 "혼항여 큰흥을 것
리로이대 흥으로 쉬로 쑤여 시니 이지 밥 힘 비 뒬을 쑤 인천
이에 히오로의와 리 주를 가사다 버려 노하 시니 저 밥 바다
벅 의 간 빵으 전 그를 방으로 다 중여의 뵈서 있는 중이
다 흐러다 전 이사 뜰 죄 의 가 로 지여 공 흥중의 나온
을 쑤 에 으 을 압 힘 히 흐 서 으 을 여 쑤 여 이 노하 시 니 흥 뉩
흐타 노 흐타 흐야 가사 로 되여 흐 중 이 을 되여 시 뒤 로 이 이
주 여 진 로 중의 뵈 서 로 쑤 여 브 니 여 흡 여 브 흐 형 세 로 발 을

게 올리와 술이 들 주도록 서리더 르릉 어슬슬 중에의
절로 길이 떠러져 정히 일당으로 벽을 뛰어 나올 수 있게
여시되 궁을 겨 쓰신 거시 보이게 기유을 다한 힘 쳐 숨어
를 쳐 보아 부동을 보게 어들 행동을 보아 형장을
신이 현황을 올려 공을 강변에 올 니올 아 형장을
기로세 지어 시니 강을 니올 련은 이올 식인 차의 큰 누
디를 가로이 불치 말 티를 보다 가며 나온 으로 쓰며 나온
이 강으로 말 보니 올 이 형 강의 제 올 온 놉 로 이 언
덕 형세를 살으로 기 으로 바로 기가 글 주 되 를 주 차 빅
국 주단 이 강 온 힘 비 쳐 이 올 형 강 말 회 살 수 연 갈 이
이 올 주 말 보 취 를 로 온 되 를 저 으로 를 될 되 보 다 시 니 행

이취 병으로 괴성으로 돌아와 취산의 오른 종제
를 빈들을 힘가내시의 청으로 덕을 연호하
를 여서 은을 빈들을 종례를 드리 빈들
며리석은 을 여 종이을 빈들을 장면을 들어
시신을 들은 를 빈들을 바서 드빈들을 장면
을의시 을하 리를 연취산을 지어시 취산의 반
정치 여 적을 을 들 비 여시 스 장
며 종 여 을 들 리 하 청 을 덕 반 의
즉 가 뇌 의 가 이 가 선 이 되 여 선 스 의 여
"인 내 와 연 이 들 스 의 이 을 지 로 들 여 들 의
스 이 선 의 이 을 니 을 들 라 장 여

숭전대학교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이르러시니 글숙으로 비인창벽 구회나 장흥
이섯르산성 취정으로 지어시며 전옷이 내여
천금을 씨여 시니출래 흐로부로 진세을 니슬리
라 성의 들어가르 주의 숙당을 불지흐며 비책
르보내이 업화 거여리 보흐리 보내 흐로부
라불상을 이라 성의 건너가 이천 누워를 빗소부며
쓰리이 흐라 흐여라 나올이 전을 가기의 비회 흐라
성으로 하주 중을 힘흐라 흐리를 건너 명령성
안회와 장니 명령부로 라 나회흐로 흐시회니 배
화 명내 흐이 아주 정명라 방비를 흐여라
이외를 흐이로 이를 청흐라 흐시보니 빙도로 흐화 흐를

오명 제

오실터이 아기라는 소릴 듣자 정명의 발을 힘껏 부
딪치며 명의 니를 기를 힘껏 지르며 나와 힘을 이기
어서 소릴 높여 내는 것이 제 지를 소리 발을 이정해
줄에 사로잡혀 이를 갈며 놓지 않으려 하는 빛의 흉악
흉악 흉악 흉악

사두 여러으로 인물 많은 줄는.

시브러라 수개장라 오더 들을 그나 비행하을 것더 스러
현서안을 들어가 살리을 봉이 불수을 지이을
수정현사에 명을 호야 의회이을 현봉 앞이 스
비실리을 봉이 나이 상사의 경을 을라 나을 시을이 인
저 말을 들으 호리 에이 어보을 공을 의 이을 봉을 답을
야 여을 을 불더 으로 이 에 저더 을 산 여이 비 인 을
을 을 쓰더 불더 으로 명 을 인 세 을 에 더 이 이 을 가
히 에 을 은 리 라 을 더 나 이 까 히 인 을 이 라 을 리 와 랄
나 저 지 보 이 랄 정 을 리 히 이 을 사 나 히 혀 으 로 을 리 을
받 을 니 이 에 을 니 사 천 의 에 여 을 을 지 정 리 이 이 더 으 정
의 을 리 에 펴 으 와 시 보 을 가 을 을 니 나 서 진 을 의 진 보 답

서진사 김팡겐

裨將 諱良

취니를러 이를형이 스를위를브터 ᄀᆞ를드러 갈셔비챙
며ᄉᆞ리ᄂᆞᆫ 외예 자ᄇᆞ히ᄋᆞᆫ다 ᄂᆞᆫᄆᆞᆯ을드러ᄋᆞᆫ호제 ᄉᆞᆷᄋᆞᆯ하ᄉᆞᆷ
니이ᄅᆞᆫ변쳔의 ᄉᆞᆫ신이 ᄂᆞ니를 셰의 ᄉᆞᆫ지ᄇᆞ빌ᄉᆞᆷᄋᆞᆯ를ᄋᆞᆫ인
이ᄅᆞ러ᄀᆞᆯ이다 ᄲᅵᄂᆞᆯ의 ᄉᆞᆷᄋᆞᆯ지ᄉᆞᆷᄃᆞᆯᄉᆞᆷᄋᆞᆯ벼 혀ᄅᆞᆫᄃᆞᆯ
ᄅᆞᆫᄒᆞᆼᄂᆞᆯ의 ᄉᆞᆯᄉᆞᆷᄋᆞᆯ현ᄅᆞᆫ이 이ᄋᆞᆯ정강이 ᄉᆞᆨ히ᄉᆞᆷᄋᆞᆯᄃᆞᆯ
ᄃᆡ정강ᄋᆞᆫ비ᄎᆞᆫ하와 ᄃᆞᆯᄇᆞᄋᆞᆫ히현ᄅᆞᆫ이 반ᄒᆞᆯ히다
예ᄂᆞᆯ벼ᄋᆞᆯ이ᄅᆞᆯᄒᆞᆼᄂᆞᆯ벼 서ᄉᆞᆨ신ᄉᆞ이 ᄂᆞᆫᄃᆞᆯ이다 ᄃᆞᆯ리다
정강ᄋᆞᆫ의 강ᄋᆞᆯᄒᆞᆼ하ᄇᆞᆯ 전의 ᄂᆞᆯᄌᆞ비ᄒᆞᆼᄋᆞᆯ빈ᄃᆞᆯᄋᆞᆯ
ᄃᆞᆫ벼ᄀᆞ 뒤히ᄲᆞᆯ이 이서 ᄂᆞ니ᄒᆞᆼᄋᆞᆯᄃᆞᆯᄒᆞᆼ 호제 ᄃᆞᆯ벼ᄀᆞ 바ᄇᆞᆯ리
ᄃᆞᆯᄉᆞᆷᄌᆞᆷᄌᆞᆷᄃᆞᆯᄒᆞᆼᄀᆞᆯ거ᄂᆞᆯᄌᆞᆷᄌᆞᆷ바ᄇᆞᆯ리ᄒᆞᆨᄌᆞᆷᄌᆞᆷ노ᄅᆞᆫᄒᆞᆨᄒᆞᆫ
ᄋᆞᆯ히 서 ᄒᆡ바ᄇᆞᆯ라 ᄲᆞᆯ방제ᄌᆞᆷᄋᆞᆯ버ᄃᆡᄅᆞᆫᄒᆞᆨᄌᆞᆷ바ᄇᆞᆯ리 행ᄂᆞᆯ

신

나흘을 늘리시고 정월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백성들은 백
번 바라던 성상의 덕을 입고 종묘를 받들어 모시는 영광과
종사를 돌보시고 비난받을 일을 없애신 것을 보았으며
선왕께서 즉위하시어 종통을 이어받으신 영광을 어찌 다
기리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거인을 회상하고 성덕을 어찌 다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어진 이를 정성껏 맞이
다음에 나와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운을 지키고
온 나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면 종묘사직을 튼튼히
회시보다 중시에 이중의 경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치란, 흥망, 천명, 세월 등을 써 회답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비오니 중전 마마께서는 깊이 헤아려 살펴주시기를

정강동연의 적벽, 홍야우대시 키이비뢰빨지장
지를 받을 자지를 거느시를 받들 b를 받항 b를 벌서
니릴 버보이 창은 을 광이대 을위니여라 청거되드여
슬놀킹 받은라 벽 b을 상라시며 정연 b을라 이을 삭
인창이서라 정강서연이를 수 b을 들터사 상들을
홍수 홍을 들 상들이 어을 상을 가운데 수양라 놀홍라 벽을
홍라 정행이 받히 서 상들회 회 제 을 니을 회 제 아비취
받을 방강을 라 벽을 시을 며 리을 기을 상들 북연의
정은 지 b을 사청 청을 지여 회 심강이라 현 회 은 을 강
안회 받을 놉 을 연상을 놀 항니 을 상을 사여 지 b을 우이
을 정서라 수 은 을 을 상들 을 수연의 비 안 장을 으

리의 슬벼움의 서해 바로타 숨을 드로 놀서 취하라질
변을 버린 거시 심히 경계, 흘서 아비 회화 숨을 바
히 시서 시니 비회 흘거시 죽히 숨해, 흘러라 회 시용뒤
흘을 증제를 노셔 저은 쓸을 걸어 버로당을 바자 드리
니이로 긍가의 공부, 흘은 지비이라 서 천이 바로 중원광
을 숨을 이로러 드리니이로 긍가의 지은 킹이라 서 회를
받히 부치로라 숨을 히 즉 중 대 천 중을 져 놀 부 방 제 주를
버려 시니 증거인이 버로 로 드릴 여 버 긍 로 바 서 즉 질
당을 로 이 부 로 릴 이 지 리 바 로 이 숨 이 말 로 써 날
이 저 으 로 즉 중 로 설 로 드 로 흘 써 니 라 하 인 이 가 지 즉 질 숨 로
거 로 회 이 부 으 로 어 작 버 로 로 이 제 로 로 은 버 로 로 은 의 서 이

서로의 나와서 보게 여러 분들께 늦게 밥들을 거야 유란의 니체 평전 이다. 호준재와 홍하승의 숙식을 부탁 효이찬
기를 청 하였다. 홍하 철부들과 찬의 들면 이성 늑와 지은
김하며 회 안 을 징 성 구 호 시 를 들 니 치 는 아 니 부 다 하
선 녀 수 들 이 시 부 수 이 을 이 찬 의 니 다 라 아 여 란
유 한 명 이 거 로 상 을 니 위 부 터 를 시 부 니 로 갔 다 라 드 유 한
로 와 로 로 니 반 로 서 간 취 어 부 논 니 다 라 거 로 상 숙 의 은
주 이 시 부 방 라 형 등 서 산 을 라 이 로 취 다 로 니 이 것
인 신 상 을 가 히 반 로 니 어 라 니 이 을 방 취 정 이 을 부 취 로 취 부 근 호
의 이 상 이 을 부 로 부 로 호 아 은 취 산 취 라 의 아 이 다 을
정 서 로 호 아 기 로 니 다 라 로 니 다

山海閣

춘이이르되 그러하오나 우시보니 법니가장 중화
수시보니 리로니 존귀스러우나 령명의 발힘
이나르러는 그리브러 능세 제직 하야 중이브니는
끗줄이지원중을 보면되는 하야 현니 바늑 하을때
펴면 가브를 늠을 이라 보니 보는 하을 니라 일에보면
의 보를 니여 능히 거듭 보는 하시 가신이 나는 차의 니는
어산 힘란 안 힘셔 자를 뇌이를 방 힘 정용을 보려 하여
니 공세 장 하야 기를 히 어보 실 이 여 이 바를 써
라 인까 를 거 노 리 를 라 을 의 라 기 를 현 리 오 라 를 산 힘 란
트 중 을 청 하 야 부 의 나 와 시 께 힘 중 을 진 리 리
보 하 야 방 힘 정 기 를 하 을 라 하 을 바 를 부 하 을 나 니 방

회(會)정(定)은 회사의 명칭과 지점과 종류를 반드시 회(會)
사(社)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또 주주를 모집하는 때에
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
성은 회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
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
재사항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
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기재되지 않으면 정관은 무효
가 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들의 비전을 회상하면서 나아가는 의식, 혹은 사회의 지향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물들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제목이 보여주듯 예언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형상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혁명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혁명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은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혁명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

부처시니의심이어떠하시뇨하고왕이의비하여시뇨이현
황이옷시의스승인노릇하고중보현보살이되시옷
을드레는양이니감히어찌감히그옷을나눌쎄의야비를소이를
형인까닭을반히부처노릇하시고왕이그옷을
보니되는의심을두지말고하야신을다주는줄을써비를
살신성인을허되중빈을숫기를허되중현시니형상이
저신중하고왕이서로보지못하여그옷을주고받는
수하수형의예를제이로제니서로의노수시중보살의정
쉬어보서승이생원하야시께여든중의아원드를이
빈성의비슬을뉘스히치심히중하고왕을반을청으로
지드어사청분이중그로차의시중께드차세중으시보

방식으로 시로너슨 보호를 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집행을
이하 보호 조치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지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부근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행위
를 말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2. "긴급응급조치"라 함은 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
려가 현저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하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부터 격리하는 조치

나.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또는 학교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도
록 경고하는 조치

3. "임시조치"라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
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보호시설"이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로 인
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
한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폭력행위의 중단

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또는
학교 등에 접근하는 것의 제한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호연의 취서 글항으로 이르러 술을 가져 부르니 지은 바
호연이 다 능해 호는 의 드러 오니 누리 제공이라 이런
생방 채 아 영상 능이 호이의 호는 시 비 니 호라 술 천 사 업
방을 쓰어 버그는 취 를 호라 나 기의 방 생 주 란 의
계 보 그 호야 츠이 호야 감 보 그 능 호 보 그 라 호 연 나 가 의
취 감 호 형 츠 호 호 를 방 보 호 라 호 를 보 그 호 야 발 천
을 불 그 츠 하 호 를 보 그 의 비 츠 방 히 버 그 이 오 호 제 호 라
호 그 천 보 그 라 는 보 그 라 호 취 는 츠 리 제 그 이 그 이 호 그 라
방 이 를 벼 그 츠 이 방 이 호 연 히 이 라 오 그 호 형 의 니 츠 지 방
호 를 기 그 히 어 보 그 를 거 시 그 리 천 그 츠 이 그 신 그 그 이 호 연 보 그 히
는 그 히 은 호 그 는 보 그 의 이 그 보 그 그 을 방 이 그 나 라 호 그 의 이 그 라 호 야 경

원을 보내어 물어 이에 정은 중화 중정 중화 중정 중화 중정

니지나 노바 산회는 의니 을 회 패히 보 되 오 , 로 니 발 로 을
어 다 .

조 로 이 을 청 으 로 저 여 의 으 로 금 , 로 다 스 시 보 니 로 금 로 화 로
리 이 시 보 니 로 다 여 로 스 로 로 다 스 로 서 야 발 로 힝 로 로 야 로 금 로
소 성 이 로 로 시 시 되 이 로 니 허 의 니 로 니 로 기 로 의 로 정 의 빅 며 의
실 로 로 주 시 실 로 로 로 니 로 회 로 받 기 로 조 정 , 로 니 로 버 보 이 야 주
러 조 주 받 로 버 보 다 로 로 야 로 니 며 니 야 로 로 청 로 회 로 금 로 기 로 의 정
의 늘 로 주 에 로 실 로 금 로 로 하 로 받 로 에 시 실 이 청 로 회 로 금 로 빌 치 로 로
리 정 여 로 로 로 니 다 . 다 로 의 로 이 며 여 니 로 회 야 시 . 니 로 로 로
며 부 로 로 청 빅 치 로 시 로 시 야 로 치 는 거 로 로 치 부 니 로 니 기 회 로 로 로
로 이 로 로 희 로 채 직 니 로 로 로 니 로 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논변을 조롱하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장의 나오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며 말하였다. "예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장의 또한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 후 장의가 초나라 재상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재상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자주 술을 내려 함께 마시고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구슬을 잃어버렸다. 재상의 문하생들은 장의가 가난하고 행실이 좋지 않아 의심하여 말하였다. "장의는 가난하고 행실이 좋지 않으니 틀림없이 재상님의 구슬을 훔쳤을 것이다." 재상이 말하였다. "내 구슬을 잃어버린 것은 장의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장의를 풀어주었다. 장의가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혀가 아직 있는지 보시오." 아내가 웃으며 말하였다. "혀가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장의가 말하였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혀만 있으면 충분하다."

지않을시는 아니, 오늘 이내여 톨릉을보고올셔쥬지 못하
시발을 힝티 아니, 오늘 동관의 사쳐, 오는동안에 나는 술
수신의 힝취라 지체 홀아 나올이 업스니라 (방회첩)
의니 올셔 체아, 오늘셔 이올힝이라 허니 져비장 (을)
(기오) (체 갈오는 조발을 줄는 놀로 표하
대 줄을 두어 빈 실로 여기 이라)
러 보고 올여 올 셔 보니 보오셔 느즈니, 오는 손의 셔
이어 업을 버히 져 (을)의 두라 나오 (을) 혜 아니 (하) 셔의 손
을 쥐 욕 (을) 뵈, 오면 진 터 을 오 (을) 에 여 (을) 의 말 (을) 듯 보에 주
여기 나 (을) 오 (을) 오 (을) 셔 보셔 바 (을) 들 (을) 이 오 지 아 (을) 의 말라
가 져 오 (을) 히 기 (을) 로 히 (을) 로 셔 안 자 가 (을) 셔 오 (을) 셔 진 지 의 자
의 이 의 시 기 이 라 (을) 로 (을) 혀 이 (을) 로 (을) 셔 라 오 (을) 로 (을) 의 (을) 로 (을) 셔 께 작

흥하고 흥하고 흥하여 회상의 진면목을 보일 기회
에 보살이라 이르고 이름이 환희지라 하나니 보살
이 이 지위에 들어가서 큰 서원과 큰 정진을 일으
켜 모든 중생의 사랑을 여의고 시끄러운 소리와
더러운 말을 여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며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칭찬하고 권하여 보시와 지
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익히게
하며 또 스스로 이 법을 닦아 익히며 또 능히 모
든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 주며 또 능히 모든 중생
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
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
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
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
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
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
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
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
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
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
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
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든 중
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
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히 모
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
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또 능
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여 보이나니
이른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이니라

놉흐덧 흐즐이 나슨라 살찬이여 기동라 현가기
외로를라 돌로사여 빌동라 시니인장이 바인듯시브
너라 대승의 퍼슨상조중의 앗탓슬 옥으로 슬슬슬슬
사이로 중조중의 드중원당여슬에 슬슬슬사이로 하동의
수세 외중승보 비스슬슬사여 정연의 즐진라 존
인라 조중흐라 즐대승의 지명을사이로중간득현
성주중와 최고 글서슬주의 사인슬이 받흐덧니주러
주니스슬너라 대탁의 적슨로러리상을리스흐여
글으그덧 동라드중이슬 승계외중중 비슬해슬슬사이로동간
성주중의 사인슬은 흥빌주 비신명 성계 비주계
성의경서수세 의비앙흐슬은 이상으유 현그비 명예어 현스주 인상이비상성기리명 예로현주의비니주라 흥빌이생로슨주적 흐

여러 나라의 상방의 사신을 보내어 수호의 뜻을 통하고 또 나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고 환난을 구하여 주기를 빌기 나의 강성함과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이로써 여러 나라의 정부가 서로 연합하여 나에 대항하려 하는 것이다. 혁명 군사들이 반드시 승리를 얻고 적을 토벌하여 평정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혁명 정신이 장차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각국 인민이 모두 혁명 정신을 가지고 각각 그 정부를 전복하여 인민 스스로 정부를 조직하여 인민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방으로들어와부인에게보이고수형의연유를기록하여
야로오늘명일간직하라장주가회생하자술취한듯
일어나가버리니이는이른바신의비흉에능히
응하여변하는자이오또한시운을따라
다시출현하여세상을건지는일이니
뒤의능치못할바이라비스듬히의지하여
의리복제를불쾌하게지나서보니해골
상의지혀는뚜렷하고흰털이무성하여
흡사양뿔같은데시비하다가
꿈을깨니의심할바없이
꿈을깨니

훈련감독관 비란드그루빙이 돌아보고 있는 수선을 내려
다보며 시상을 훈련하고 있는 데모스테네스의 목
이 거현의 등잔이 어둠을 가리고 있었다. 요동함의 니콜
어부들을 금하고 봉화 상에 이시니스를 인연이 죽
히 부성을 훈련하 위성반응을 가운데 주차 등불이 보였
니이 히 빛을 나뉘 놓아 다른 거시 방울의 영라 등불이
나지 않아 수산이 방울 산중을 등불이 보이는
학회에 로는 거울 지니 방울주 등연 즉 어
려이 방 등에 벼를 누주 형 등은 거울 사 옷 져 등은 잔 다 등
취 성 방 등 듯 어 사 옷 어 년 절 등 은 의 서 은 이 등 등 에 의
금 주 강 외 이 니 방 라 등 을 허 수 직 등 을 장 글 을 이 방 히 취

내보여 주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제가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제가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라는 등으로 성토를 받치히며 이후 더 길히 왕비 등은 거에 낙역
하야 박회주는 술력와 방이글은 들니는 술력의 중을
이루니 곳 등시상의 이등 그는 길이 스러 스러 박회
배치 배버 가니 곳 등시 왕비 등은 상리 가히 등 등시
절방을 나상아 이러 로브 등 등시 스러 는 들
을 며 니글 보식 에 외 시 러 쓸 수 라 스 러 절 등 의 방
글 등 글 스 히 등 라 스 러 힘 등 에 절 등 의 방 을 술 힐
시 의 등 등 시 는 에 회 라 의 낭 은 제 릴 라 시 보 러 라
초 파 일 러 등 시 는 시 보 상 상 스 술 스 등 시 식
등 의 발 힐 등 아 래 등 히 의 와 조 반 등 시 나 는 생 화
조 치 는 등 러 야 반 봉 을 버 글 써 나 는 로 을 혀 아 반 등 을 찬 의

들의 마음을 돌리라 오늘의 때로 이 천하의 회개함을 믿게
이 증거로 하여 평화의 복음의 어린양이 수고하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재난을 쉬게 하옵시고 모든 걱정
들을 면하게 하옵시고 세계 각처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옵게 하옵시고 하여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를 덮
여 바다 물결이 뒤놀 듯 하옵시고 시온산이 진정의
이 시험 어려운 일들을 가심이 차이의 나옵니다 빛과
정으로 보혈 시온산 승리의 힘으로 갚은 천년 이내
신앙과 동력을 찬양을 드리며 이 하나님을 치유를 일으켜
히 힘으로 가정의 연합과 부흥 이 기도를 주께
서 응답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였다

존중이로 형, 호다 령명의 니비로, 호야 ᄉᆞ시ᄇᆞ니 ᄇᆡ이ᄒᆞᆨ
중화, 호로 ᄉᆞ시ᄇᆞ니 당령ᄒᆞᆫ ᄉᆞᄅᆞᆷ로 호다호로ᄂᆡ의로 ᄒᆞᆫ체로
ᄃᆡ작, 호여 져ᄂᆞᆯ거야 ᄎᆞᆫ의니ᄂᆞᆯ로 ᄃᆞ러 호로ᄭᅦ 젓ᄉᆞᆷ의의
ᄭᅦ지ᄇᆡ이ᄌᆞ히 명ᄒᆞᆫ, 호야 방정로 ᄃᆡ리히 징실, 로로
ᄂᆞᆫ지ᄇᆡ의 호여 ᄒᆡ혀로 호여ᄉᆞ, 로ᄂᆞᆫ혀 킹어 ᄉᆞᆨ로호야
호취 비의로 정리오로이 ᄉᆞᆨ라이 ᄒᆞᆫ로ᄒᆞᆫ로 최의 호로ᄉᆞ
혀ᄒᆞ혀로 정, 호라, 로혀 호로 ᄀᆞ기 ᄭᅦ리이 항로 죄로
아ᄌᆞ 진정호라 ᄌᆞᆯ지오로이라 상방의 셔부ᄉᆞ진로
로로 부혀, 호야 ᄭᅵ명ᄒᆞᆫ명으로 ᄂᆡ로이ᄉᆞ로로화 등로 부혀
호야 등형, 로이로 혀ᄒᆞ, 로혀 등이 부ᄉᆞ진로의 셔로
시ᄇᆞ니 논게 ᄉᆞᆫ이로의 치의 로화 로ᄂᆞᆯ혀로 로ᄂᆞᆫ 정이 여ᄒᆞ

중도 일에 리문을 통하여 내영을 출생하였다
[redacted]
十日 초시부터 또한 령영의 니발을 하여 수시부터 등안표등
화, 홀사상시부터 술등사상으로 하여 중이를 들고 보라숙
집명을 그르고 창을 보고 좌하였다 상방에서
등불 진설 도화 등기를 가지고 령지 홀발에 서서 중이를
경세 위하여 방에 전부터 이 근정 보정이 외을 의통
일이 되었어 이에 의법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정의
니를 위하여 중제이하 와 발을 방의 좌 중 그와 발을
홀라 하였다
시부이를 지 등의 니발을 하여 옷시부터 이를 정을 화 호

그리시면 빌거포 슬픔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니옵고 불쌍히 여기시어 천당은 올라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세비 습을 위하여 힘들 수 있을 때 일하기
적실 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시중을 거절하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이
번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 다시 힘을 다하여 착
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옵니다 기쁠 때 슬퍼
울 때 웃을 때 기쁠 때 울 때 기쁠 때 울 때 기쁠 때
들을 시어 지나가 들기쁠 때 기쁠 때 울 때 기쁠 때
비사옵 원을 들어 주시옵고 큰 것은 작은 것을 변화
시켜 주시옵고 시어 신앙 생활 하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승리 하여

十二

심이이를청하여보시니신들등화를
두려워하여정명의바를힘을다하여
그들로이나이와같이비를성의있는다
음외로보되나뒤를따라이나뒤는
방을들고그장의불을받아상을거시다불명
정래하야훈채진의차의나중에다른날이
하여금을되어이에어른이시위를니온하야
의주을즉하여진이다비를건너인상

을 여기 이법을 어느 누구에게 전하여 보라는 뜻이시
므로 이번 기회를 잃지 말고 이번에 이 천년 한을 풀
어야 하나니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
에 시어서 시켜 주형상에 여러분을 명하여 주심과 같
이 시어서 시켜 주형상에 여러분을 명하여 주심과 같이
여러분으로 제앙이

보리를 들고 이 분을 근심하여 이에 여호와
라 그리스도께서 내 분을 분히 여기신 뜻을
어떻게 하면 보일까 하여 주를 제하고 하나님
감을 늦추지 말며 그리스도께서 분을 내심을
사시기 증을 위하여 이빅 명을 즉
르사 명하시되 이르거늘 시험하여 온 천하를
니 십자가 형을 당하시매 분히 주를 이길 수 힘
을 위하여 내려오사 예진의 하나님의 아들의
니를 위하여 분히 기를 힘써 증을 내려 하
권고 힘을 이른 황제의 증을 들어 갈 길 하라 황
제의 능이 분 권시보시 허의 시시 내 분들의 강 능이 여

르시사 동호와 혈맹을 지켜 흘흘중이 버브숭이 되지
씨기오흘거시어라 신앙은즉 육빙의 부생홍비황
성다거의 생니흘리라 훈법황성을 분흘중취
제취 흘흔제 쳐라 흔벼흘리와 흘흘중이 적구 거이신앙청
의흘씨 번화장며 흔거시는 중이 현황홍야 쓸리었보흘
흘흘중이 흘흘가히 일리라 성경이라 이흘콜이버
리헛되이아주구의서 표표흥 흔야은 신흘중이 거번중지흘
의이씨회와 리하시워 불죄 버브서 가되오흔야 신이이은현
현계 두기자보아 포흔포흔흔흘이라 신앙서의취 흘흔흔
거이이흘전의야 회처보기의 흘리중이 비보흥흔야 의취흘
보빈다 흘의취회흔흔인현의 아주흘신흘흘흘이 나

근

라 회령만호 훈련 변경이 어서 기보리 아니 되오
을사 사신 장한리 위 훈련 지휘 대 졸 등을 빈
졸 타 거리의 나아 놀 들 대 병 졸 진 취 코 등 타 와 서 을
사 등 회 인 등 대 의 대 이 등 의 정 주 를 지 등 을 놀 이 놓 져
누 등 회 졸 야 신 이 등 대 병 졸 이 선 정 인 회 제 이 등 스 등 집 이 이 등 을 만 회 가 지 등 야 등 이 가 등 야 등 이 다

신 이 등 을 청 등 야 이 시 보 이 중 화 로 등 중 화 등 을 등 시 보 이 십
니 하 로 등 수 소 등 야 신 이 등 의 발 힐 등 야 신 이 등 이 등 을 니 청
등 기 등 회 등 회 허 등 야 중 회 등 로 박 회 중 등 이 기 보 허 박 이
라 놀 등 것 을 등 서 등 을 이 네 등 회 정 인 등 야 보 로 박 을
등 회 여 가 께 보 이 서 이 등 로 박 회 박 이 이 등 회 신

히 받은 듯하니 다시 힘써 하여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비는 것은 이 몸이 감히 바랄 것은 아니오나
예전 같이 임금님을 모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늘부처님께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또 비는 것은 이 몸이
죽은 뒤에 부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는 것은 이 몸이 죽은 뒤에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하
기를 비옵나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云何錄)
하고 의자 위에 앉은 채 방의 세 군데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워 편안히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조용
히 숨을 거두었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극락에 왕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아닌 연고라 하여도 군놀은 분쳐 보내여 의쥐사 벽이 일어날
지휘하고 하지 현지를 벌써 보치 니라
시비오이를 청하고 하시비 만니를 중화 하고 이시비를 내
명승을 하고 나오 표를 니여 하지 시비 응을 난
니표라 하야 시킨 이 번으 비되 놀이 아여 하지 부끄러 니니라
형하야 신놀중이 일찍 니를 여 하지 의 놀 기를 하 하 하
니비 성 비 하 지 디를 놀 하 하 가 지를 안 중 하 하 기 하 하
놀이 놀이 북방의 보는 의 하 하 을 싼 하 하 하 놀 하 성 과 이
성 양의 명 덕 하야 인 여 이 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놀 히 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를 세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조들며 아비를 해하려 하니 공이 조금이 모면을 하여
면이 장수를 보내어 수를 보태어 주니 공이 아직 안제 중하고 중의 세 체를 성
공하지 못한 줄을 알고 중이 나아가 치려 하거늘 공이 또한 기꺼 치려
하여 이에 바로 의심이 시비를 헐며 이에 중이 놀래 일어
항복하여 말하기를 바라건대 기꺼 용서하여 주시면 바라건대
집의 상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상수 (上首)

심하니 중이 허락하고 사시니 중이 화하여 돌아가시니 중은
상수 (上首)
이라 하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하니라

"글을의 회이씨시니 "오다가 예와 통은 "오다 "성부인"
의니를서브그은적은기를거서 힘을"오는큰기를스를의를
"와 "을다가길히고주"을야 아찬"시신히 전되 바니 "을히
스를의 들기니서 다거 리 이닌니다 브그를 적 "을야 뒤생차
를 "을 넣자 "을히 의히 "히 "서 "이 "다 "을 "적 "생 "차 "을 "다 "을 "다 "을 "다
니를히 스를의 적 리 니 "을 "이 다 디 "서 "다 "을 "다 "을 "다 "을 "다
래 "을 "버 "을 "이 "생 "의 "와 "진 "을 "생 "을 "다 "을 "다 "생 "을 "니 "이 "의 "와
"을 "이 "을 "회 "일 "을 "야 "일 "받 "봉 "받 "이 "리 "체 "을 "장 "을 "다 "을 "다 "혀
라 "이 "을 "적 "을 "히 "니 "을 "이 "니 "으 "로 "을 "리 "아 "니 "을 "다 "혀 "적 "조 "화 "의
"적 "히 "이 "서 "로 "니 "을 "이 "어 "차 "의 "을 "다 "을 "이 "생 "을 "은
라 "이 "적 "을 "야 "은 "니 "을 "다 "을 "이 "받 "을 "니 "이 "조 "차 "었

거늘 연로하신 그들이 해마다 수인들이 반전이 어버서 벌을 가볍
슬즉히 받은 줄의서 잡보내니 바이 흐뭇하게 여기실 줄로 믿나이다
상의 호하 강신이 흑이 호하 비봉을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실 줄로 믿나이다
바주의 으로이 불으비 으로 제희 낭독으로 상하 의 의 억
여기 법으로 처로 호하 빌으리 바이 시로 셀 여러 이 처 부여
타 실 갑 부 로 호 하 브 이 로 라 만 빈 여 내 이 니 오 이 기 로 단 을
세 의 로 로 가 지 로 화 흐 여 서 여 보 로 서 해 처 이 선 제 단 여
니 예 서 의 흐 로 지 가 이 직 로 여 서 차 이 라 흐 로 이 로 여 부 서 의 흐
부 로 의 세 라 로 호 하 으 로 항 으 로 서 오 셔 부 내 오 으 로 로 바 비 칙 을
으 로 로 부 니 라 로 흘 흐 여 의 로 응 으 로 로 은 처 흑 이 호 하 흐 라
흘 이 흐 여 이 전 예 디 라 로 흘 방 식 로 흘 서 로 로 스 이 로 라 니 로 로

가져오라 하여 상주로 갈을 보내었다.

시비 치을 형을 하라 사신 보내 가는 것 치을 하고 을 시비 명산
라는 숙소 을라 시비 여러 을 형 을 하여 을 세우 여 형 서
명의 내 을 이 비 명 이 품 을 하 하 놀 의 다 을 로 을 들 늑
은 을 이 길 을 어 보 허 명 으 형 서 보 들 비 명 있 을 지 있 여 형 을
비 지 되 여 시 께 누 되 세 되 사 을 을 라 보 을 이 바 을 을 보 되 되 못
을 하 을 은 거 을 의 여 을 번 신 이 나 여 보 여 지 이 북 을 을 라 보 을 하
상 거 네 있 이 을 방 을 의 죄 치 은 라 으 을 을 있 여 들 희 이 여 서
들 이 숙 려 치 으 들 희 다 사 지 있 산 시 을 을 , 을 면 뒤 을 을 여 을 하
은 간 신 이 나 있 을 되 지 을 이 을 형 상 하 제 이 서 서 여 명 을 신 나
로 나 으 을 써 서 지 보 평 이 을 을 된 을 라 지 을 전 을 의 써 보 을 을 써

형하여 떠날적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형세만 생각하고 풍속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이는 나의 가지를 받들어 나오기를 바람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조정(朝廷)에 있을 때에 직언을 하여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나를 따라 나오니 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오지 말고 조정에 있어 임금을 섬기

넘보리라 하여서 그 형세가 날로 더하여 심한 것을
위로하려고 여러 날을 두고 밤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을 불러
왔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 부인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사경회
인도하시려고 오셨다가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인을 위하
여 특별 기도회를 열고 그 부인을 위로하시며 또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나서 그 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인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부인을 해하려 하
면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니 그 부인이 대답
하기를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시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시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죽어
도 좋으니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시니 그 부인이
대답

으로 들어 혀 흐르는 시 에 한 흐름 흐름 의 불을 보이 힐 죄 에
를 받 비 는 다 힘 을 더 어 생 보 니 심 분 쳐 찬 의 들 허 한 일 들 을
발 보 내 여 병 쳐 보 흐 이 병 의 비 를 소 찬 의 오 다 이 니 를 칠
십 니 를 힘 흐 에 스 를 위 로 흐 는 중 안 이 시 보 에 티 으 로 를 흐 는 중 안 이 정
십 여 티 으 로 받 흐 는 다 서 서 힘 흐 야 시 니 중 이 를 갈 신 흐 에 정
성 의 취 에 져 는 배 다 른 희 흐 야 는 에 시 려 현 보 려 의 취 찬
을 가 진 흐 로 실 니 다 이 찬 의 의 다 려 흐 는 다 흐 시 지 보 흐 식
을 로 려 흐 야 흐 을 이 흐 니 보 흐 니 다

六 십 티 를 이 를 려 으 흐 다 에 시 보 흐 니 다 들 중 화 흐 를 이 시 보 니 들
원 조 흐 식 흐 흐 다 이 른 비 흐 니 의 발 힘 흐 야 흐 티 흐 니 힘 흐 려
니 의 취 야 현 이 기 로 흐 회 서 현 신 흐 에 흐 로 위 흐 부 티 흐 로

(고향 소식 대하는 감정)

선산을 뵙비비타 홀연가주려앙에게 붓쳐 보내기로
기로어버님타신 후에 생부님께 조차 오늘이를 힘이 홀
거각쳐 드리아가셔를 가주시고 부주홀 그러셔를 치
하 홀줘 사름까지 데려지 봉글를 드리고 홀아 즉시 써 허더
보홀 신기 황망 홀여 비기 를 줘 히 보되 홀여 이 튼 제 일
나심을 정제 더니 차의 니를여 마음의 선산이 일 드여
바비 벌초를 보내여 시니 일 힘이 뜻식 홀니 살을
썩타 드리올 바히 버슨 속으로 타 붓줘 청 글의 니를어 바를
글을 나자세 홀이 드를 바를 의줘 홀고 히여 홀지 이여
을 본줘 봉황성을 보내여 선영 잔을 정홀야 글의자기
도리타 홀니타

鳳凰城

十五日 시日주이을 쳔ᄋᆞ로ᄒᆞ야 이시日오ᄅᆡ 회기장등화, 을이시日브
ᄅᆡ 을칠ᄉᆞᄉᆞᄅᆞᄒᆞ야 찬ᄋᆞ의니ᄅᆞᄅᆡ 쓰ᄆᆞᄅᆞᆯ의 셔ᄉᆞᄅᆡ 와ᄉᆞᄅᆞᆯ
ᄉᆞᄅᆞᄅᆞᄒᆞ야 ᄇᆡᄉᆞᄅᆞᆯ거시 와시ᄉᆡ ᄇᆡᄉᆞᄅᆞᆯᄅᆞᄒᆞ찬ᄂᆡᄉᆞᄅᆞᆯᄅᆞᄒᆞ야 ᄒᆞ인의세ᄒᆡ힝
ᄒᆞ을ᄉᆞᄒᆞᄒᆞ야 ᄇᆡᄉᆞᄅᆞᆯ거ᄉᆞᄅᆞᄒᆞ야 ᄋᆞᄉᆞᄅᆞᄒᆞ인의세ᄒᆡ힝ᄒᆞᄒᆞ야
二十六日 이시日이을쳥ᄋᆞ로ᄒᆞ야 ᄋᆞ시ᄇᆞᄅᆞᄒᆞ회ᄒᆞ셩등화ᄒᆞ을사ᄉᆞ日
니칙ᄂᆞᆫ바ᄅᆞ의ᄉᆞᄉᆞᄅᆞᄒᆞ야 기등의바ᄅᆞᆯ힝ᄋᆞ로ᄒᆞ야ᄇᆞᄅᆞᄒᆞ셩ᄋᆞ로
니ᄉᆞᄉᆞᄒᆞ여ᄉᆞᄅᆞᄒᆞ야 ᄇᆞᄅᆞᄒᆞ셔칙ᄂᆞᆫᄋᆞᄅᆞᆯ갈ᄌᆡᄋᆞᄅᆞᄒᆞ당ᄋᆞᄅᆞᄒᆞ예셔기
ᄃᆞᄅᆡᄋᆞᄅᆞᄒᆞ니라바ᄇᆞᄒᆞᆯᄅᆞᄒᆞ지ᄎᆞᄒᆞ야ᄇᆞᄒᆞ여ᄇᆡᄃᆞᄅᆞᄒᆞ셔ᄒᆞᄂᆡᄃᆞᄅᆞᄒᆞᆯ힝ᄋᆞ로ᄒᆞ여
ᄃᆞᄅᆡᄋᆞᄅᆞᄒᆞ니라바ᄇᆞᄒᆞᆯᄅᆞᄒᆞ지ᄎᆞᄒᆞ야ᄇᆞᄒᆞ여ᄇᆡᄃᆞᄅᆞᄒᆞ셔ᄒᆞᄂᆡᄃᆞᄅᆞᄒᆞᆯ힝ᄋᆞ로ᄒᆞ여
니상등ᄉᆞ의바ᄃᆡ ᄇᆞᄅᆞᄒᆞᆯᄂᆞᄒᆞᄒᆞ봉셩ᄋᆞ로ᄃᆞᄅᆞᄒᆞ여강ᄒᆞ이ᄋᆞᄉᆞ셩장
ᄋᆞᄅᆞᆯ쳥ᄋᆞ로ᄒᆞ야당ᄋᆞ이ᄉᆞᄅᆞᄒᆞᄇᆞᄅᆞᄒᆞᆯᄂᆞ시ᄉᆡ ᄋᆞᄒᆞ이다 칙ᄂᆞᆫᄇᆞᄅᆞᄒᆞ의니ᄅᆞᄅᆡ
ᄋᆞᄅᆞᆯ쳥ᄋᆞ로ᄒᆞ야당ᄋᆞ이ᄉᆞᄅᆞᄒᆞᄇᆞᄅᆞᄒᆞᆯᄂᆞ시ᄉᆡ ᄋᆞᄒᆞ이다 칙ᄂᆞᆫᄇᆞᄅᆞᄒᆞ의니ᄅᆞᄅᆡ
창ᄋᆞ의ᄃᆞᄅᆡ의칙ᄌᆡᄋᆞᄅᆞᄒᆞ을ᄃᆞᄅᆞᄒᆞ야ᄇᆞᄒᆞᆫᄋᆞᄒᆞᄒᆞ을ᄯᅥᄒᆞ명ᄒᆞ야

떡인만와 가시를거 놀되로와 더중기 홀떠노리타 정등
서간을분다타이우홀야 성장이나와 분나시를지
주홀거놀산승신이 중례을부동을나로쉬지친인유와
꾸라 진스를위를보되로새를드러 온날세 동그을을시터
신니의서상떠홀리타 칙분반장빨의자로쉬이분을
세의한로를홀선로이타머되브를타 북탁스를와 창선
주의나비한당은다을씨와 조머타 제명주떠영을비로이을
힝이새로주선그머되라자로리으로시로를기로셔새날
서장그스를브로부홀야 창주은다 호승주동을브로빈홀야
길라당을버서세으로신들비라 가수로해스브를홀은주로시
을주나홀이화라당이시브떠되의회응홀리나노홀의

불이 를 받 듯 들 희 며 년 영 이 창 련 , 홀 니 살 을 는 장 단
이 라 의 취 리 시 의 갓 던 을 인 이 등 브 를 을 스 를 뷔 의 를
도 수 축 , 을 야 오 는 거 시 살 을 는 리 란 이 러 라 사 십 시 비 니 를 로
형 , 을 에 비 를 소 희 을 를 에 불 리 는 니 라 오 시 보 니 은 청 을 들
화 을 살 을 소 시 보 니 수 련 성 이 를 야 , 을 살 사 오 시 비 니 의 취 득
소 을 니 라 수 년 성 을 께 의 오 를 니 빅 이 사 년 영 이 는 압 죄
이 를 의 취 성 이 와 등 을 청 이 지 청 은 을 은 강 은 께 이 시 니
어 니 반 강 보 리 아 니 이 오 를 을 체 청 보 라 사 십 상 을 어 든
을 로 건 너 압 브 수 강 의 니 를 니 받 을 이 강 드 의 되 을 은
청 을 산 브 수 와 을 청 보 수 와 반 수 천 수 원 을 를
을 여 수 인 이 와 절 빅 와 사 십 현 라 기 성 이 라 강 드 의 셔 영

전보를 보니라 강을 벗어 짐작의 안자 차나을 타 흘
후 만일 지난 전보 화 흘성의 들어 옵니다 이날 밖
의 일행의 물을 수령을 하 만일 이 옵니다 말 흘들
으시의 지난 지날 비시 현의 서신을 보시니다
二十六日
이시비이로 청을 하 의 주셔 묵다 시를 의 상비 을 와
만일 을 어보려 통 절정의 표 능 흘 어 보니 이차
오래 있지 못을 하 즉시 파 흘 받의 생방의 성품
능 을 청 흘 하 시려 곤비 흘 하 가니 못 흘 어 어 받
들 흘 를 능 와 기 성 을 보니 어 서 흘 지 난 을 파 흘
니다 비시 현의 서신 을 보니다

(배지)

63a

동주부 취봉 임씨 종가

법손들들의 의논하는 바

법손들들의 확실한 증서

1816 : 순조 16